

##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 현모양처의 두 얼굴, 되어야만 하는 ‘賢母’ 되고 싶은 ‘良妻’ -  
Discourse on ‘Wise Mother and Good Wife’ in the 1920’s-1930’s  
- Women’s Ambivalence about the Roles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전미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Jun, Mi-Kyung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scourses on “wise-mother and good-wife” in the 1920s - 1930s by analyzing the magazine “Shinyeosung.”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1. “Wise-mother and good-wife” was the ideal type for the “new women”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the role of a mother was far more important than that of a wife.
2. The dominant discourse at the time was that the “genuine” new woman was defined by her motherhood, and she could not have a job because raising children w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her. But in fact, new women wanted to be a wife through free love and marriage. They wished to be a good-wife in the “new (modern) family” for their loving husbands.
3. The ideas of “wise-mother” and “good-wife” arose from disparate backgrounds. A woman had to nurture her maternal aptitudes; but had to suppress her passion for free love and marriage. Although she had to learn Western methods of bringing up children instead of the traditional one, she was expected to practice traditional virtues of a wife, not Western attitudes. The role of a mother was defined by experts, but that of a wife was decided by husbands. The function of a good-wife was merely a clever handling of her husband, whereas the function of a mother was considered to require professional knowledge.
4. New women could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ld women” through the roles of wise-mother and good-wife; nonetheless, those roles were forced by society. They did not have any other viable choices.

---

▲주요어(Key Words) : 신여성(new woman), 현모양처(wise-mother and good-wife), 자유연애(free love), 전통(tradition), 서구(Western), 과학(science), 가부장제(patriarchy)

---

\* 이 연구는 2003년도 동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전미경 (E-mail : preba@chol.com)

## I. 들어가며

식민지 시기 현모양처는 여성이 지향해야 할 '표준'이자 '규범'이었다. 물론 당대에도 여성의 '현모양처주의'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그 이데올로기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사회적 분자로서의 여성의 삶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의 목소리였으며 여성의 현모양처됨을 강제하는 지배담론에 균열을 가할 만큼 강렬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현모양처'는 식민지 시기는 물론 오늘의 여성과 여성교육정책, 어린이, 근대가족 등을 이해하는 핵심어기에 이미 적지 않은 선행연구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근래의 연구 성과로는 서구와 다른 한국의 모성담론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sup>1)</sup> '어린이'의 탄생과 모성,<sup>2)</sup> 현모양처 교육,<sup>3)</sup> 출산통제 담론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sup>4)</sup>와 여성주체 형성과정에 있어서 신여성의 현모양처의 의미를 다루는 연구<sup>5)</sup> 등이 있다. 반면, 이데올로기로서

- 1) 문소정(1997)은 서구여성운동이 개발한 모성담론을 모성보호론, 모성자유(선택)론, 모성찬양(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는 모성교육론과 모성보호론이 근대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성담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모성교육론은 20세기 초반에 진행되었고, 모성보호론은 1980년 이후에 더욱 체계화 되었다는 연구결과 만으로는 한국의 모성담론의 평면적 지형도를 보여 주는 것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긴다.
- 2) 김혜경(1998; 2000)은 식민지 시기 '어린이'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면서 어린이의 태동과 함께 전문화 되어가는 모성역할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의 가족 연구가 전통/근대, 식민/근대, 공(적영역)/사(적영역)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면서 동즈로의 계보학적 방법론으로 모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 3) 홍양희(1997)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었던 여성의 현모양처 교육은 조선 여성을 일제의 국민으로 통합시키고, 서구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기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박정애(2000)는 1910년-20년대 초반 일본으로 유학 간 신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을 조망하면서 현모양처를 주장하는 지배담론에 대한 신여성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의 여성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홍양희(1997), 현경미(1998), 박정애(2000), 김경일(2001), 김미영(2003) 참조.
- 4) 소현숙(1999)은 출산통제 담론을 분석하면서 일제와 조선 지식인 모두가 모성적 역할을 민족이나 사회 혹은 국가와 같은 집단에 대한 여성의 의무로 규정하기 위하여 '모성'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5) 전은정(2000)은 신여성의 근대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지배담론에 적용하고 협상하며 개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하나가 '현모양처 되기'였다고 한다. 김미영(2003)은 일제에 의해 정책적으로 길러진 양처현모론이 조선 내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서도 적극 동원된 채 강제적 진리로 신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태운(2001)은 식민지배하에서 모성이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식민지 말기의 조선이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모성이 도구화 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미영과 안태운은 남성논객 중심의 담론을 지배담론으로, 여성의 담론을 신여성(여성) 담론으로 대

의 현모양처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양처현모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의 현모양처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sup>6)</sup> 이런 측면에서 한·일 양국의 현모양처를 분석한 가와모토 아야(1998)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sup>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조선 내 민족주의 지식인 모두는 '국가'든 '민족'이든 공동체 지향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성을 도구화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현모양처가 비교적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할지라도 식민지 시기 개념으로서의 '현모양처'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즉 현모양처란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는가? 현모양처의 어머니 노릇과 아내 노릇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가? 일제가 정책적으로 강조한 가정개량운동이 여성의 현모양처 역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여성의 새로운 역할로 주목되었던 '주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sup>8)</sup> 등 현모양처의 세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잡지 『신여성』에 나타난 '신여성'<sup>9)</sup>의 현

별한 후 모성담론을 이분화된 대립적 구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내에서는 지배담론과 차별화된 신여성의 주장은 부각될 수 있으나, 지배담론에 포섭된 혹은 교섭(negotiation)의 과정으로 지배담론의 여성성을 실천하고자 한 신여성의 목소리를 간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6) 식민지 시대 '현모양처'라는 개념어에는 '현모양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신여성』에는 '현모양처'라는 용어가 훨씬 더 자주 출현하지만 '양처현모'(7권 10호(1933년 10월), p.75.)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7) 가와모토 아야(1998)는 한일 모두 여성을 지배체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현모양처'가 이용되었는데, 일본은 전쟁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성이 예찬되었고, 조선은 황민화 정책의 하나로 현모양처 사상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근현대 여성에 관한 연구는 문옥표 외(2003) 참조.
- 8) '주부'와 관련해서는 김혜경(1999)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920-1930년대 가사노동 담론을 통해 '주부'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
- 9) 식민지 시기 '신여성'을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당대 '현모양처'를 비롯하여 '신여성' 개념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다양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형성되어 같듯하고 해체되며 변화하는 범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경일, 1998:13). 또한 이노우에 가즈메(2003:159)는 현재 한국 학계의 신여성 연구는 주목할만 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여성' 개념이 아직 정립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학교를 다니는 여성, 전통적 여성과 구별되는 여성을 지칭하는 지시어인 '신 여성'이 하나의 개념어로 발전되어 '신여성'으로 호명되는 과정 및 1930년대 새롭게 나타난 '모던-셀'을 비롯하여 그리고 '신여성'과 '모던-셀'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여성의 개념과 그 범주에 대한 연구는 조은-윤희(1995), 권희영(1998), 전은정(1999), 김수진(2000), 김미영(2003) 참조.

모양처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현모양처는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어머니 노릇'에 치우쳐 논의되는 가운데, '양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식민지 시기 현모양처는 여성교육의 필요성에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에 현모양처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어머니'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모양처를 구성하는 주된 하위영역이 여성의 '현모 노릇'과 '양처 노릇'으로 양분된다고 볼 때, '현모양처'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규범으로 현모양처를 제시하고 있는 지배담론의 목소리와 '현모양처'를 일상에 실천해야 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아야 하며, 동시에 '현모'와 함께 '양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현모양처의 성격을 현모와 양처로 구조화 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어머니 노릇과 아내 노릇의 당위성과 그 구조 과정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신여성』의 현모양처 담론의 구성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신여성』이 말하는 '현모양처'의 당위성을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현모'와 '양처'가 어떤 방식으로 발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현모양처를 구성하는 '현모'와 '양처'의 구성과정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현모와 양처는 매우 이질적인 차원의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의 문제 제기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신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아내 노릇'의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현모와 양처가 되기 위하여 여성은 어떤 덕목들을 습득해야 했으며, 그것들은 누구에 의해 완성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좋은 신여성인 '현모양처'가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가 잡지 『신여성』의 현모양처 담론만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신여성』의 주된 독자층은 특히 1920년대의 경우에는 '여학생'이었다. 그리하여 『신여성』에는 '여학생'을 계도하기 위한 많은 계몽담론이 전개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자유연애'의 문제였다. 이는 이 연구가 『신여성』을 통해 '신여성'의 아내 되기를 분석하고자 할 때, 잡지 『신여성』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통해 '아내'가 되고자 하는 여학생들의 열망을 질병으로 전환시켜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과 『신여성』이 '여학생'을 철저하게 계몽의 대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이 연구가 『신여성』을 텍스트로 삼아 현모양처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자 동시에 '신여성'의 '아내 노릇'에 대한 『신여성』의 계몽적 논조를 확인하는 연구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같

은 한계는 '자유연애'가 여학생을 포함하여 당대 '신여성'을 함께 에두르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연구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현모양처의 성격을 면밀히 고찰하는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여겨진다. 둘째,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식민지 시기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현모양처의 구체적 정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계몽담론이 말하는 여성의 '현모양처' 되기에는 새 국민을 양성할 '현명한 어머니', 남편을 내조하는 '순종적인 아내' 역할과 함께 가정개량의 기수로서의 '주부'의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신여성의 '현모양처' 노릇에는 가정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남편의 수입을 쓰임새 있게 관리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등 생활개량의 기수인 '주부' 역할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현모양처'를 단지 어머니와 아내에만 국한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차후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지배담론이 말하는 여성의 '현모양처 되기'와 '신가정'과의 관계, 신가정을 수립하기 위한 근대적 가사노동 담론의 분석과 근대적 주부의 탄생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잡지 『신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여성』은 1923년 9월에 창간되어 1926년 11월까지 약 32권이 발행된 후, 다시 1931년 1월에 속간되어<sup>10)</sup> 1934년 8월까지 약 42권이 발행되었다. 여기서는 현재 영인본으로 묶여 있는 48권과 발행을 확인할 수 있었던 30권 중에서 접근 가능한 원본 15권을 합쳐 총 63권을 분석하였다.

10) 1926년 12월에 발간된 『별건곤』의 「편집실 방송」에서는 「신여성」이 1926년 11월(4권 11호)을 마지막으로 정간되었음을 알려주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신여성」의 社告에 나와 있다고 말한다(『별건곤』 2호(1926년 12월), p.154.). 그러나 현재 『신여성』 4권 11호를 발견할 수 없어 정간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정간을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여성』은 4권 10호(1926년 10월)로, “이 다음 11월에는 녀학교 생활호로 하여 각가지 녀학교의 안팎그로 드러나는 사실, 숨어잇는 사실을 식기로 하겠습니다”라는 편집후기(p.94)로 미루어 보아 정간은 매우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보인다. 어쨌든 『신여성』의 정간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일제의 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당시 개벽사가 심혈을 기울여 발간했던 『개벽』 역시 일제의 출판에 대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1926년 8월을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이후 『개벽』은 차상찬, 김기전에 의해 “속간호”와 “복간호”가 발행되지만 이때의 『개벽』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잡지였다). 『신여성』의 폐간을 안타까워했던 개벽사는 『별건곤』에 여성란을 보완해서 발간하였다(『별건곤』 2호 편집후기 참조).

## &lt; 분석 텍스트 &gt;

번호	권 호 (년 월)	비고	번호	권 호 (년 월)	비고
1	1권 2호 (23.09)		22	4권 3호 (26.04)	
2	2권 3호 (24.03)		23	4권 4호 (26.04)	여학생호
3	2권 5호 (24.05)	결혼문제호	24	4권 5호 (26.05)	
4	2권 6호 (24.06)		25	4권 6호 (26.06)	
5	2권 5호 <sup>11)</sup> (24.07)	여름특별호	26	4권 7호 (26.07)	
6	2권 6호 <sup>12)</sup> (24.09)	창간1주년호	27	4권 8호 (26.08)	8월남량호
7	2권 8호 (24.10)	가을특별호	28	4권 9호 (26.09)	창간3주년기념호
8	2권 10호 (24.11)	의복문제와 공개장호	29	4권 10호 (26.10)	10월涼秋호
9	2권 12호 (24.12)	갑자송년호	30	5권 1호 (31.01)	
10	3권 1호 (25.01)	을축신년호	31	5권 3호 (31.04)	
11	3권 2호 (25.02)		32	5권 4호 (31.05)	
12	3권 3호 (25.03)		33	5권 5호 (31.06)	
13	3권 4호 (25.04)		34	5권 6호 (31.07)	
14	3권 5호 (25.05)		35	5권 9호 (31.10)	
15	3권 6호 (25.07)		36	5권 10호 (31.11)	
16	3권 8호 (25.08)		37	5권 11호 (31.12)	
17	3권 9호 (25.09)	창간3주년기념 培大호 <sup>13)</sup>	38	6권 1호 (32.01)	신년특대호
18	3권 10호 (25.10)		39	6권 2호 (32.02)	2월특집호
19	3권 11호 (25.12)		40	6권 3호 (32.03)	3월특집호
20	4권 1호 (26.01)		41	6권 4호 (32.04)	4월특집호
21	4권 2호 (26.02)		42	6권 5호 (32.05)	5월특집호
43	6권 6호 (32.06)	6월특집호	54	7권 5호 (33.05)	讀物특집호
44	6권 7호 (32.07)		55	7권 6호 (33.06)	
45	6권 8호 (32.08)	8월滌署讀物호	56	7권 7호 (33.07)	7월방학호
46	6권 9호 (32.09)	9월新涼특집호	57	7권 8호 (33.08)	
47	6권 10호 (32.10)	10월특집호	58	7권 9호 (33.09)	부부생활문제 특집호
48	6권 11호 (32.11)	11월특집호	59	7권 10호 (33.10)	여학생문제 특집호
49	6권 12호 (32.12)		60	7권 12호 (33.12)	송년호
50	7권 1호 (33.01)		61	8권 1호 (34.01)	
51	7권 2호 (33.02)	부인문제 특집호	62	8권 2호 (34.03)	
52	7권 3호 (33.03)		63	8권 3호 (34.04)	陽春호
53	7권 4호	직업부인 문제특집호			

11) 「신여성」의 2권 5호는 모두 2권이다. 즉 1924년 5월에 발행된 「신여성」 역시 앞표지에는 “第五號”로 발행하면서, 편집 후기(p.94)에는 2권5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신여성」에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잡지가 식민지 시기 가장 대표적인 여성종합잡지이기 때문이다.<sup>14)</sup> 천도교 산하기관인 개벽사에서 발간한 「신여성」은 개벽사의 핵심적 구성원이었던 박달성, 방정환, 차상찬이 발행인<sup>15)</sup>이 되어 주요 필진으로 활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 ‘천도교 청년당’과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약하던 김기전, 김명호, 이정호, 윤석중 등이 글을 기고하였다. 당시 개벽사는 「신여성」을 비롯하여, 「개벽」, 「별건곤」, 「어린이」 등을 발간하면서 천도교의 문화운동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신여성」과 「신여성」의 전신에 해당하는 「부인」<sup>16)</sup>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발간되었다.

발행초기 「신여성」의 주 독자층은 여학생이었다. 잡지 「신여성」은 여학생, 즉 ‘신여성’을 ‘新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 발간되었다. 따라서 「신여성」의 편집진은 계몽성이 강한 글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었다. 현재 「신여성」의 창간호<sup>17)</sup>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발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sup>18)</sup> 발간되는 전 시

12) 「신여성」은 편집진의 실수인 듯, 1924년 6월에 발간된 것과 9월에 발간된 것 모두가 2권 6호로 되어 있다.

13) 「신여성」 편집진이 2주년을 3주년으로 착각하였다.

14) 「신여성」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부인」이 발간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여성잡지 계보는 1917년 12월에 발간된 「여자계」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동경유학생들은 자신의 기관지로서 「학지광」을 발간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가 발간한 것이 「여자계」이다. 그러나 「여자계」는 이광수를 비롯하여 남성들의 적극적 찬조가 있었기에, 「여자계」의 뒤를 이은 「신여자」는 여성들에 의한 최초의 여성잡지로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잡지가 각각 6호(1927년 1월에 다시 속간됨), 5호를 끝으로 중단된 반면에 「신여성」은 비록 4년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3년에서 1934년에 걸쳐 약 73권이 발행되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출판에 관한 일체의 지속적인 탄압과 당시의 매우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발행된 「신여성」의 긴 생명력은 이 잡지에 대한 개벽사의 애정과 열정을 말해주고 있다.

15) 박달성이 발행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여성」은 1923년 11월에 발행된 1권 2호 뿐이며, 이 연구를 위해 찾을 수 있었던 「신여성」이라는 제한을 둔다면, 2권 3호(1924년 4월)부터는 방정환이, 5권 9호(1931년 10월)부터는 차상찬이 발행인이 되어 편찬되었다.

16) 1922년 6월에 창간된 「부인」은 이돈화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간되었다. 「부인」은 순한글 발행을 원칙으로 대중적인 계몽운동을 선도하였으나, 1923년 8월을 마지막으로 「신여성」으로 재창간된다.

17) 「개벽」 39호에는 「신여성」의 창간 소식과 함께 창간호 목차가 실려 있다. 창간호에는 「개벽」의 주 필진인 김기전, 이돈화, 박달성이 권두언 격의 글을 쓰고 있으며, 특히 박달성의 “부인을 보내고 신여성을 마즈면서”에서는 「부인」이 「신여성」으로 제호를 바꾸게 된 이유가 수록되어 있으리라 여겨진다. 「신여성」 창간호 목차 및 「부인」이 「신여성」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박용옥(2001), pp.147-151 참조.

18) 발간 당시 「신여성」의 발행 의도는 1권 2호에 실린 권두언 격의 이돈화의 글에서 유추할 수 있다.

“여러분이 현재의 병적개성을 버서버리고 김히 내면에 못쳐

기에 걸쳐 편집진의 주된 목적은 ‘계몽성’이었다. 특히 ‘신여성 변민호’(3권 11호), ‘부인문제 특집호’(7권 2호), ‘부부생활문제 특집’(7권 9호) 등 특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기획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신여성』은 결코 진지하기만 한 잡지는 아니었다. 만화, 사진, 영화를 비롯하여 앙케트나 인터뷰, 생활정보, 국외소식란, 만평류, 문예란 등의 수많은 꼭지를 통해 계몽성과 함께 오락성·정보성을 두루 갖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신여성』은 당시의 여성, 특히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정의 모습을 면밀히 추적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텍스트이다. 이제 『신여성』이 말하는 ‘신여성’의 참된 삶의 모습이었던 ‘현모양처’를 만나보도록 하자.

## II. 신여성, 현모양처 되다.

1920년대가 시작되면 비록 극소수라 할지라도 여성의 삶은 천편일률적인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외형이 공존하게 된다. 여학생이 있었고, 여성 직장인이 생겨났다. 이들은 독서, 테니스, 자동차 드라이브, 영화 보기 등의 취미를 가지면서 진고개와 미쓰코시 ‘페파트먼트’ 등에서 도시를 소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신여성의 외양과 태도는 ‘허영증’과 ‘사치병’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다. 신여성이 약간 배웠다고 “이마에 땀 흘리지 안코도 먹을 수가 잇겟지 하고 생각”하면서 “인형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못한 것”이었다. 신여성에게 “지식이 잇스면 지식이 잇느니만치 올흠을 위하여 사워야” 했다.<sup>19)</sup>20) 그렇다면 신여성의 ‘올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요섭은 당대의 여성을 늙은 구여성, 젊은 구여성, 신여성으로 구별하면서 속수무책인 늙은 구 여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젊은 구 여성과 신 여성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로”는 “현모양처” 여야 한다고 말한다. 아모리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논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할지라도 여자의 근본적 욕망은 현모양처 됨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 다수의 여성에게 현모양처는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여성 스스로가 원하는 “본능적 충동”이기 때문이란단다.<sup>21)</sup> 여성은 “사람으로서 남편

을 섬기고, 또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통해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22)</sup> 현모양처인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의 신”이었으며, 아내로서 “夫의 행복의 원천”이었다. “純女性”으로서의 신 여성은 자녀나 남편에게 희생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어머니와 아내의 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은 자신의 “無盡藏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 힘은 온전히 현모양처로 수렴되어야 했다.<sup>23)</sup> 이렇게 여성에게 “현모양처”는 벗어 날 수 없는 길인 동시에 “인형”이 되지 않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현모양처에서 ‘현모’와 ‘양처’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여성에게 제시되었을까? 여성은 ‘현모’와 ‘양처’를 같은 무게로 수용하였을까? 이제 이러한 일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1) 되어야만 하는 ‘어머니’

#### (1) 어머니, 참된 신여성의 전형

여성은 우량한 국민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여야 한다는 주장은 개화기 여성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확고한 토대였다. 優劣勝敗, 弱肉強食의 제국주의의 논리가 조선에 적용되면서 조선은 대외적으로 독립국으로 남아있기 어려웠으며, 그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독립국을 수립할 수 있는 소년과 청년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들을 구국의 동량으로 길러낼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식민지 시기에도 계속된다.

‘전 세계, 전 인류의 생명에 모성인 여성에게 있다’는 다음의 주장은 모성역할의 중요함을 열렬적으로 주창했던 계몽담론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니 민족의 흥망이든지 문명이 고하되는 일반의 리유는 전혀 여성의 흥망여하에 잇는 것이다. 성장과 진화, 위축과 퇴화, 여성의 운명여하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 여성을 모성의 의미에서 리탈시키면 그도 亦 아무 존귀함이 업다고 생각한다. … 여성들이 그대들은 남성이 안이다. 개성을 뽐 것만이 안이다. 생산이 가능한 이상 즉 모성인 재문에 전민족의 장래-전민족의 운명이 그대들의 손에 달녔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생명의 열쇠를 쥔 사람은 그대들이다. … 조선에 새 국민이, 새 생명이 필요한 이상 완전한 모성이 필요하다. 여성은 모든 논박을 뜻지 말나-다 못 어머니라는 것-조혼 어머니-새 국민 어머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여성들아, 조선의 여성들아, 피를 뽑아 맹서하라 완전한 새 국민의 모성이 되기를-<sup>24)</sup>

잇는 진실한 본래성을 찾는 것이 이른바 신여성이라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이 신여성을 찾고자 하면 한번 陷之死地의 디경에 이르지 안이면 안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한번 죽었다가 거듭나지 안이하면 안이됩니다. …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목적입니다.” 이돈화, “세상에 나온 목적”, 『신여성』 1권 2호(1923년 9월), pp.8-9.

- 19) 김명호, “여학생제군에게: 새로운 관찰을 바라노라”, 『신여성』 4권 5호(1926년 5월), pp.8-11.  
20) 인용문은 해독의 편의를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으나 필요한 경우 괄호로 밝혔으며, 뜻의 전달을 위해 원문에 없는 한자와 쉼표 등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본문 속의 인용문은 “”안에 처리하였다.  
21) 주요섭, “신여성과 구여성의 행로”, 『신여성』 7권 1호(1933년 1월), pp.32-35.

22) 조현경, “여인논단, 피를 路鐵에 흘린진낸 흥, 김 兩孃의 변사를 보고”, 『신여성』 5권 5호(1931년 6월), pp.59-63.

23) SKY 역, “미래의 여성이 되여라: ㅅ는 자녀의 神, 처녀는 청년의 燈火!, ㅅ는 夫의 행복의 원천!”, 『신여성』 3권 11호(1925년 11월), pp.8-13.

24) 이은상, “조선의 녀성은 조선의 모성”, 『신여성』 3권 6호(1925년 7월), pp.2-6.

여성은 '모성'을 통해서만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다는 주장은 '모성' 밖의 여성의 공간을 박탈시키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어머니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내가 참으로 여자가 되었다면 ... 가정에 들어가 안온한 생활에서 가정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치만 그것이 다만 안락한 가정생활을 탐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정을 정리하는 동시에 적어도 전 조선의 가정이 다 가티 정리되도록 생활개선이란다지 자녀양육란다지 경제 향상이라든지에 힘쓰겠다.<sup>25)</sup>

'내가 여자라면'에서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인 염상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와 여자의 삶에 대한 '규정'이었다. 여성이라면 모성을 벗어날 수 없을뿐더러 적어도 신여성이라면 제대로 된 어머니 노릇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6)</sup>

## (2) 일터, 신여성의 '모성됨'을 방해하다.

"현대여성" 즉 신여성은 직업여성이거나 혹은 "직업 가지기를 몹시 조와하고 직업여성이 되기를 동경하는" 여성을 의미한다.<sup>27)</sup> 이러한 정의에는 신여성에게 '자립적 삶'을 살도록 촉구했던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주장과 함께 졸업 후 가정이 아닌 새로운 공적영역을 갈망했던 여학생들의 욕망이 혼재되어 있었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하나가 '남에게 의뢰하지 않는 생존'이라는 주장은 신여성에게도 유효한 것이었다. 특히 1920년대 신여성을 둘러싼 주된 화두 중의 하나는 "자립"이었다. 남편과 부모에게 '의뢰'하는 삶은 수치였다. 신여성은 "직업전선에서 부딪기자! 그리하여 동원하고 있는 사회적 역량의 일구성 분자가 되는 동시에 사회의 실재를 실지체험에서 각득"하자고 외치고 있었다.<sup>28)</sup>

이와 같은 담론의 효과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사회 구조의 변화는 '기혼의 직업여성'을 탄생시키고 있었다. 잡지 『신여성』은 여성의 직업문제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직장'이란 새로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은 아무개의 어머니나 아무개의 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호명되었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여성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직장이란 공적 영역에서 당당한 사회의 일분자, 즉 '사회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성은 '어머니'이고 '아내'여야 했다. 즉 여성은 '여성=가정인'이라는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직업'이라는 공론

장에 진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여성의 '독립적 삶'과 여성의 천직인 '어머니로서의 삶'을 충돌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당시에 직업여성의 '모성됨'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모성'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흥미진진한 작업이다.

"직업부인문제"를 기고한 배화여교학감 김윤경에 따르면,<sup>29)</sup> 산업혁명 이후 서구에서는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남성의 고적적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가운데 여성이 "직업상으로 든든한 입장을 어드려" 하는 주장과 "그것을 반대하는 편"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주장은 여성이 직업부인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모성보호의 필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타벨 여사는 "부인은 家外 직업보다도 중대한 모성의 직업이 있스즉 다른 직업으로 이것을 침해함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고, 엘렌 케이의 주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아메리카의 수백만 여자는 가정과 자녀의 보호를 단체 사업에 맞기고 자기는 사회적 유익한 직업이며 상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러한 공리사업이 아니고 완전한 인격이다. ... 만일 베도벤이나 액너 될 수 있는 이를 기관수나 되게 한다하면 이는 실로 悲事다. 이가티 신사회가 여자로 하여금 영혼의 교육자 된 모성되는 대신에 戶外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면 이는 정력의 큰 오용이다. ... 부인이 아무리 훌륭한 의논을 평화회에서 토할지라도 그 자녀가 육아실에서 서로 치고 서로 때리면 그 탁론이 무슨 힘이 있스랴? ... 고귀한 인간을 짓는 것이 곳 「영혼의 교육자」 된 모성의 임무다. 고로 戶外 부인직업은 불가하다하는 것이다. (단, 절대반대가 아니고 자녀교육을 두고는 불가하다는 것임)<sup>30)</sup>

이상에서 엘렌 케이가 말하는 논지는, 여성의 직업은 모성됨에 걸림돌이 되기에 '영혼의 교육자'된 여성은 자녀교육의 역할이 있는 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 담론이 있은 후 10년이 지난 1933년의 "직업부인문제특집"호(7권 4호)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에게 직업은 가정생활의 완벽함을 기할 수 있는 여성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직업여성이라도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인 아내, 주부,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주된 이유는 '모성'에 있었다.

자녀가 있는 이로 직업을 가지는 것은 자녀에게 대한 죄악이라고 본다. 자녀가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은 위험

25) 염상섭, "내가 여학교를 졸업한다면: 먼저 가정을 정리하고", 『신여성』 3권 3호(1925년 3월), pp.19-20.

26) 『신여성』에 나타난 신여성의 '어머니 노릇'에 관한 연구는 이희경 외(2004) 참조.

27) 김자혜, "직업여성과 가정", 『신여성』 7권 4호(1933년 4월), pp.34-36.

28) 박순옥, "신여성 평단: 여성과 직업", 『신여성』, 5권 10호(1931년 11월), p.33.

29) 김윤경, "부인문제(3): 부인직업문제", 『신여성』 2권 11호(1924년 11월), pp.33-38.

30) 앞의 글, pp.34-35.

천만한 일이며, 사회의 문제거리다. 아이들이란 맥이고 입히기만 하면 자라는 것이 아니고 一動一靜은 어머니의 본질에서 김님 밧어야 사람 쏘이 되는 이상 적으마한 수입 때문에 귀중한 자녀양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단연 금지해야 할 일이다. 교육받은 어머니가 김느는 자녀들이 더 불량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 그 원인은 자녀양육에 구여성만치 힘을 안 쓰는 때문인가 한다. 그러기에 자녀가 업는 생활양식이 아조 편리해서 사회에 나서서 사회 일도 완전히 하면서 가정도 만족히 해 나갈 수 있는 이외에는 직업부인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sup>31)</sup>

이처럼 직업부인은 자녀가 없는 여성만의 것이 되어야 했다. 아니면 아어머니 노릇이 끝난 후에나 선택해야 했다. 이를 위하여 10년이고 20년이고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에 갖게 될 '직업'을 위하여 여성은 쉬지 말고 공부해야 했다. 직업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본의를 잊어 "결코 남성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sup>32)</sup> 아이 낳기와 살림살이는 여성의 "천직"이기에 "「녀자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존심을 가지고 천직의 가치를 높히고 그 가치를 낼 수 있는 여자된 것을 자랑"하여야 한다.<sup>33)</sup>

## 2) 되고 싶은 '아내'

여학생은 신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시골의 어린 처녀가 '기생'이나 '노동자'가 아닌 신분으로 도시로 진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아마도 '학생'이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었을까. 시골의 젊은 구여성은 도회지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신여성', '모던-윙'로 변화하였다. 학교와 기숙사, 영화관과 백화점, 전차와 기차와 자동차, 은행, 회사, 관청, 공장 같은 빌딩이 있는 도회지라는 물리적 공간은 '신여성'으로의 변화를 실감나게 만드는 배경이었다. 달라진 생활공간에서 달라진 여성의 삶은 여성에게 전과 다른 것을 소망케 만들었다. 그것은 자유연애였다.<sup>34)</sup>

### (1) 자유연애, '아내'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

1920-30년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은 시대적 과제이자 신여성의 '소명'이었다. 이제 지배담론이 강조했던 '신가정'의 '아내'라는 지위가 과거 전통사회와는 다른 방식 즉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산물임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유연애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당위였다. 연애는 멸시할 수도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제였다.

진실한 사랑(戀愛)은 결단코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과 타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인생과 사회와 사업과 경영에 조금이라도 방해와 악독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전연 반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과 타락에 빠지지 안케 만들며 사회와 사업에 다시업는 광명과 행복을 던져주는 것이다. 까닭업시 신성한 연애를 멸시하고 배격하며 어리석고 더러운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의 남녀들이여! ... 어느 때나 참 연애를 갖는 사람은 어느 때나 참 생활을 가는 사람이요, 어느 때나 참 생활을 갖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업시 어느 때나 참으로 훌륭한 것이다.<sup>35)</sup>

연애는 청춘의 것이었다. 청춘의 연애가 당위적일 수 있었던 것은 자유결혼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가정'이란 결과물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신비한 것"이자, "인간의 숙명"인 연애는 "인간 지고한 도덕이요 영구적 靈과 靈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연애를 통해 완성되는 결혼만이 "사람의 완성"이고, "생활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잇"는 유일한 "魂의 安住地"였다.<sup>36)</sup> "연애만 있으면 엇더한 형식을 밧던지 정당한 결혼"이라고 말한 엘렌케이의 주장은 조선에서도 "과연 한 가지 진리"로 유효하였던 것이다.<sup>37)</sup>

이상적 결혼이란 남녀의 "애정 뿐으로 기조를 삼"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 한마디는 신에 대하여나 人에 대하여나 아모론 권위로도 제재나 간섭치 못"하는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sup>38)</sup> 아내와 남편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결혼지위였다.

이러한 연애에 대한 당위성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청춘이었으며, 신여성이었으며, 여학생들이었다.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은 연애편지를 쓰고 연애를 꿈꾸고 있었다. 여학생을 포함한 신여성의 연애에 대한 열정은 이제 조선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여학교 졸업생들은 부인운동이 자유연애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풀어야 했고,<sup>39)</sup> 교장선생님들은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오로지 연애와 자유"라는 사실을 심히 경계해야 했다.<sup>40)</sup>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에 대한 신여성의 권리는 신여성에 대한 '경계'의 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신여성이 결혼의 자유를 부르짖는 이유는 곧 "자유연애하고 자유결혼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모양처-외부의 강제에 의한 가식적 현모양처가 아니라 자기진심에서 일어나오는 참된 현모

31) 김자혜, "직업여성과의 가정", 『신여성』 7권 4호(1933년 4월), pp.34-36.

32) 송금선, "현대여성과의 직업여성", 『신여성』 7권 4호(1933년 4월), pp.46-47.

33) 이만규, "여학생에게 보내노라", 『신여성』 7권 7호(1933년 7월), pp.12-15.

34) 식민지 시기 연애에 대한 논의는 권보드래(2003) 참조.

35) 안희남, "청춘과 연애", 『신여성』 7권 5호(1933년 5월), pp.82-86.

36) 장국현, "신연애론", 『신여성』 5권 3호(1931년 3월), pp.10-14.

37) TS, "미혼한 처녀에게: 성, 연애, 결혼에 관하여 -축하말을 위하여 숨김업시 쓰는 편지", 『신여성』 3권 2호(1925년 2월), pp.26-31.

38) 유우상, "여성의 혁신생활: 입센의 여성주의", 『신여성』 4권 1호(1926년 1월), pp.61-68.

39) 김윤경, "여자의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을 자각하라: 특히 각 여학교 졸업생들에게", 『신여성』 2권 3호(1923년 3월), pp.6-15.

40) 조춘광, "인간애와 교육: 이화대학정신교장에게 들이는 희망", 『신여성』 2권 11호(1942년 11월), pp.11-67.

양처-가 되어보겠다는 절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sup>41)</sup>

(2) 신여성, '아내'를 꿈꾸다.

"학교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구여성에게 거리를 활보하는 여학생들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구여성은 신여성이 공부하는 것, 활발하게 돌아 다니는 것, 학교에서 음악이나 무도하는 것은 너무나 부럽고 신기한 일이라고 말한다. 특히 자기의 뜻 맞는 남자와 자유결혼을 하고, 내외가 동부인해서 다니는 것을 보면 "신선가티도 뵈이고 째 세상의 사람가티도 뵈"인다고 말한다.<sup>42)</sup> 그 중 가장 부러운 것은 '사랑'과 '연애'를 당당한 자신의 '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당시 일관되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연애에 대한 관심이었다(송연옥, 2003:92). 졸업을 앞둔 여학생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모다 자유결혼을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sup>43)</sup> "다른 여자와 관계한 산애", "축첩하는 산애"가 아니라 "사내다운 사내, 침착한 산애, 친절할 산애"를 만나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었다. 이런 "산애"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sup>44)</sup>

따라서 결혼에 있어서, "실력만 상당하고 매사에 고려가 깊은" 남자와 "피차에 맑고도 쓰거운 사랑만 잇스면 문벌이 엇더커나 집안이 엇더커나 그런 것은 헤아리지 안캣나이다"라고 말하는 신여성에게 사랑하는 남자의 "집안 꼴"과 "성미 사나운 쉬 어머니"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sup>45)</sup>

결혼하던 날이야 ... 우야하고 다정한 彼(남편-인용자)는 사랑이 넘치는 낮빛으로 당신은 참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시겠소?라고 집쳐 물을 때에 나는 비록 수줍고도 간단하나마 「애쓰」라고 했지요. 그는 감격에 넘치는 표정으로 「나도 참으로 당신의 영원한 애인이 디 겠서요! 당신이야말로 이 외로운 사막을 거러가는 나의 이상의 반려가 되여 주서요」<sup>46)</sup>

조춘광의 아내 김숙정은 결혼 하던 첫날 밤 남편으로부터 "영원한 애인"으로 남아 있겠다는 다짐을 받는다. '애인'으로 남아있겠다는 남편의 고백은 남편의 '애인'으로 남고자 하는 신여성의 열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아내가 되어 과자봉지를 사

들고 퇴근하는 남편을 "사랑차"로 맞이하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눈물을 짙짙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하게 된다.

아! 고마운 노릇이다. 월급은 올랐겠다. 장가를 드러겠다. 그도 과장의 중매로, 결혼한 안해가 도모지 이리케 사랑스럽고 시원 시원하구나. 예라 이놈. 내가 엇저면 이리케 행복스러우냐, 앓 이게 꿈인가 ... 오! 한울, 한우님이시여! 저와 갖치 행복에 새인 놈이 이 세상에 또 다시 어대잇겟습닛가?<sup>47)</sup>

달라진 결혼관, 달라진 연애관을 가지게 된 신여성에게 결혼은 가문을 이을 적장자를 생산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생활을 백 퍼센트 엔췌이 하자는 약속"이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귀여운 특갱이", 어린 아이는 "삐비"가 되어 단란한 가족을 꾸리게 되는 것이다.<sup>48)</sup> 당시 신여성들은 『신여성』 지면에 나란히 실려 있는 "이귀례와 임화", "최정희와 김유영", "최승희와 안막"의 부부사진처럼 "곱고도 매디가 거치른 사랑"을 헤치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 살고 싶었던 것이다.<sup>49)</sup>

지금까지 잡지 『신여성』에 나타난 현모양처 담론을 살펴볼 때, '현모양처'가 여성의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현모양처 담론은 '현모'에 훨씬 더 많은 무게 중심이 실린 채 여성에게 강요되었다. 모성성은 여성의 천직이자 본성으로 강조된 반면 '아내 되기'는 '어머니 되기'처럼 여성으로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처럼 제시되지 않았다. '아내 되기'는 자유연애, 자유결혼, 신가정을 소망했던 '신' 여성의 욕망이라고 함이 더 정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배담론은 계몽적 어조를 새 국민을 양성할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신여성은 자유연애를 통해 신가정을 건설하고, 그 속에서 남편의 애인같은 아내가 '되고자 하였'던 것이다.

### III. 신여성의 다른 이름, 賢母와 良妻

신여성이란 결국 "개성의 자각에 土台를 잡은 確乎한 인생관이 잇서 가지고 환경과 시대를 바로보고 잘 이해하며 자아에 깊히 반성하여 건설한 신생활 의식을 파지하고 이에 적당한 신기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sup>50)</sup> 이것이 없다면 신여성은 허영 호기, 교사부화 등 모든 악덕의 本營으로 매도되었다. 겹질뿐인 트레머리·통치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색채 다른 시원한

41) 주요섭, "신여성과 구여성의 행로", 『신여성』 7권 1호(1933년 1월), pp.32-35.

42) 최인화, "구가정 부인이 본 여학생", 『신여성』 4권 4호(1926년 4월), pp.42-43.

43) 안석주는 연애에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회화한 만화를 '옛날의 연애와 지금의 연애'란 제목으로 게재하고 있다. 『신여성』 4권 3호(1926년 3월), p.53.

44) "녀학생의 결혼관", 『신여성』 2권 5호(1924년 5월), pp.42-44.

45) 오OO, "미혼남녀들의 바라는 남편 · 바라는 안해, 내가 바라는 남편의 인물", 『신여성』 2권 5호(1924년 5월), pp.62-63.

46) 김숙정, "결혼생활보고서", 『신여성』 7권 5호(1933년 5월), pp.46-49.

47) KT생, "滑稽對話: 신혼부부의 제 삼일 남편 · 안해 · 앵부새", 『신여성』 4권 9호(1926년 9월), pp.47-49.

48) 안재영, "結婚---年생 보고서, OHOHOOH!", 『신여성』 7권 9호(1933년 9월), pp.20-21.

49) 김옥엽, "연애결혼비첩", 『신여성』 7권 1호(1933년 1월), pp.98-103.

50) 실의식, "될슈잇으면 「망중환인」으로", 『신여성』 3권 6호(1925년 7월), p.41.



명사'이자 "책임질 만한 귀여운 일흠"인 "신여성"은 신여성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하여 "가정에서 무수의 압제 받는" 여성과 "후진의 여성"을 위하여 "날센 칼"을 만들어야 했다.<sup>51)</sup> 그런데 신여성을 만들고 있는 이 '날센 칼'은 현모의 얼굴에서는 서구적 양육법으로 무장한 어머니가 되기를 요구하였다면, 양처의 얼굴에서는 연애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는 순종적이고 도덕적인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제 '날센 칼'의 양면을 살펴 보자.

### 1) 길러져야 하는 신여성의 '母性性', 경계해야 하는 신여성의 '戀愛性'

과학의 한 영역인 "심리학"은 남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여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과학은 여성에게 여성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녀를 길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나 아이들의 병을 간호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sup>52)</sup> 무엇보다 여성의 "본능적 경향"을 "간호하고 남을 거두어 길드는 온정적 동작"<sup>53)</sup>이라고 설명하는 여성에 대한 과학적 진술은 여성이 어머니로 귀착되는 과정을 가장 잘 대변한다. 이러한 일면을 좀더 짚어 보자.

인류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어머니의 위대함은 저절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여성은 역사상 위대하다고 하는 "저서", "고안", "제작", "발명"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큰 것을 성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를 만든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膝下에서 훈련된 까닭"이기 때문이다.<sup>54)</sup> 딸은 "무수한 칸디, 레닌, 톨스토이, 맑스 등을 길러낼" 어머니였으며, "우주의 瘡瘍, 전 인류의 난문제를 해결할 관건"이 바로 장차 어머니가 될 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sup>55)</sup>

선던덕 체질관계로 여자란 반다시 자식의 어미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가 나혼 자식일 것 가트면 되도록 잘 양육하여야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장래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여 올 때 세상 사람은 여자의 위대함을 진실히 느끼고 가정에 있어서 한 집안 살림을 잘 처리해 나아가갈 때 이세상은 말하리라 인생의 「제 일 큰 사업은 그것이라」고.<sup>56)</sup>

51) 송적성, "내가 신여성이기 때문에", 『신여성』 5권 4호(1931년 5월), pp.72-74.

52) 김승식, "심리학으로 본 여자: 모방성과 감정에 대하여", 『신여성』 4권 7호(1926년 7월), pp.26-31.

53) 김승식, "지상강좌, 연령상으로 본 여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는 나히를 따라 이와가티 변천한다", 『신여성』, 4권 9호(1926년 9월), pp.15-21.

54) 김윤경, "여자의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을 자각하라: 특히 각 여학교 졸업생들에게", 『신여성』 2권 3호(1923년 3월), pp.6-15.

55) 조현경, "자녀차별철폐론", 『신여성』 5권 11호(1931년 12월) pp.14-21.

56) 이귀영, "가정생활개조와 그 실제", 『신여성』 3권 2호(1925년 2월), pp.34-38.

한편,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여성교육의 당위성은 처음부터 여성의 '모성됨'에 있었다. 이광수는 한 나라의 "조흔 국민"은 "조흔 어머니를 만히 만드러 노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기에 "녀자교육은 모성중심의 교육이라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와 같이 "민족덕 개조가 긴급한 국민에게는 무엇보다도 만흔 조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성교육이 왜 "모성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대변하고 있다.<sup>57)</sup> 여성은 장차 "남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다.<sup>58)</sup> 여기서 여성을 '어머니'로 호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남'의 어머니임을 강조하는 까닭은 다른 姓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할 여성의 운명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남'의 어머니가 될 여성이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여성교육은 모성교육이어야 했다. 특히 여학교 출신의 신여성이라면 구여성에 비해서 훌륭하게 아이를 양육해야 했다. "신여성이나 구여성이나 어린이 기르는데 별로 차이를 발견치 못하겠다는 것"은 "늬인들이 신교육 욕설 중로 하나"였으며, "교육바든 신여성도 아이 기르는 데는 구여성보다 나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재간이 업다"는 사실은 여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컬어졌다.<sup>59)</sup>

이처럼 아무리 신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여성이어야 했다. 모성은 여성이 벗어날 수 없는 여성의 본성이었으며, 모성됨은 남성이 도탈할 수 없는 여성만의 거룩한 '성지'였다.

신여성의 모성됨은 천성적으로 잠재워 있던 여성의 모성적 본질을 발현시켜야 하는 것이었고,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가정'의 '아내'의 지위를 갖기 위해 신 여성이 통과예레처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던 '연애성'은 경계의 대상으로 조망되었다. 수많은 연애담론은 '자유연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젊은 남녀의 '건전한 연애'를 보장해 주는 세밀한 행동강령은 만들지 못하였다. 현모와 양처를 바라보는 계몽의 시선은 그것이 얼마나 서로 다른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현모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어머니 노릇을 학습해야 하였다면, 양처는 새로운 아내 노릇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신여성들이 경계해야 할 '무엇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이 즈음 탄생되고 있던 '안해'는 자유연애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지위였기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는 청년남녀를 중심으로 연애병이 창궐하였다. "젓내나는 어린년놈까지"도 "사람"이란 "괴상한 말"로 인하여 "코 냄새 나는 날큰 지그러-한 병마" 즉 "연애병"에 걸

57) 이광수, "내가 여학교 당국자이면!: 모성중심의 여자교육", 『신여성』 3권 1호(1925년 1월), pp.19-20.

58) 박달성, "입학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신여성』 2권 3호(1923년 3월), pp.14-19.

59) 남강춘, "처녀 이집에 무엇을 생각나: 결혼을 압둔 여자들의 심리조사", 『신여성』 7권 10호(1933년 10월), pp.74-77

려 이들의 책상과 호주머니에는 예외 없이 “사랑편지”와 “연애 소설”이 들어있게 되었다. 의지의 독립생활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생활을 해야 할 청년들이 연애만 숭상하고 자연만 노래하는 것은 심히 경계해야 할 일이었다. “연애병”이란 “요 악착한 악마가 엿지하여 우리 어린 남녀에게 걸니여 피와 살을 말니우”는가. 그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학생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 즉 “사랑합니다”를 “공경합니다”로, “누님”, “읍빠”를 그저 “사람”으로 “외롭다”는 말을 “세상은 다 내 동무”라고, “멀니 멀니 무인 절처로 가겠다”는 말을 “각가히 각가히 세상으로 기여들겠다”고, “죽으면 조깅다는 말”은 “세상이 다 죽어도 나 뿐만은 산다”로 바꿀 방책이 시급히 간구되어야 했다.<sup>60)</sup>

그런데 이 연애병의 치료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것은 남성과 다른 여성적 특성 때문이었다. “실험”, “검사”, “통계”, “서양학자”의 권위에 기대어 여성의 심리를 말하는 설명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져 말하며 그 내용은 매우 감정적이며, 이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먼저 믿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사랑에 치우치며, 정의나 도덕 감정은 거의 없으며, 감정이 도의적 결의를 망치는 경우가 많으며, 판단력과 의지가 약하며, 잘못된 습관도 계속하는 보수적 존재였다. 과학에 의해 설명되는 ‘여성성’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은 그 특성상 ‘연애병’에 쉽게 공략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증거들을 얻기란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여학생의 기숙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그 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서양 배우의 브로마이드”가 걸려있는 “문화주택 침실”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은 연애편지를 쓰고, 연애소설을 읽었다. 이들은 졸업 전에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조바심을 표현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눈오는 밤에 갖고 싶다”고 하면서도 좀더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현재 연애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꺼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멋진 청년이 나타나 “나의 천사여! 나의 비너스여!”하면서 자신의 발 “압해 무릎을 꿇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sup>61)</sup>

## 2) 전통을 ‘버려야’ 하는 賢母, 전통을 ‘이어야’ 하는 良妻

식민지 모성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위생과 질병에 대한 논의이다.<sup>62)</sup> 의료체계의 변화 및 ‘몸’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틀의 태동은<sup>63)</sup> ‘과학화’, ‘규율화’, ‘표준화’된 어머니 노릇을 만들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식민지

시기 어머니 노릇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학적인 육아법이라 할 수 있다.<sup>64)</sup> 어머니는 재래의 어머니 노릇을 버리고 의사·교수·박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육아법을 따라야 했다. 특히 신여성의 어머니 노릇은 구여성의 그것과 차별화 되어야 했으며, 그 차별화는 과학적인 전문적 양육법에 의해 증명되었다.<sup>65)</sup> 현모는

64) 『신여성』지에서 현모가 실천해야 했던 ‘과학적 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희경 외(2004)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양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5) 사실 잡지 『신여성』은 ‘신여성’에게 매우 자세하게 어머니 노릇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신여성』이 과학적 어머니 노릇에 얼마나 열중하였는지는 양육과 관련된 글의 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1932년에 발간된 『신여성』에 실린 양육과 관련된 글은 다음과 같다.

윤태권, “실익기사 태아로 출산까지”, 6권 1호, pp.74-80. /

이선근, “실익기사 어린아기 기르는 법”, 6권 1호, pp.84-91.

/ 윤태권, “실익기사 태아로 출산까지(2)”, 6권 2호, pp.68-71.

/ 이선근, “실익기사 어린아기 기르는 법(2)”, 6권 2호,

pp.72-76. / 이정호, “어머니의 란(1) 아기에게 들려줄 이야기”, 6권 2호, pp.78-83. / 유상규, “조선여성과 산아제한”, 6

권 3호, pp.8-11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 입학시험과 어머니

의 주의”, 6권 3호, pp.60-63. / 이선근, “실익기사 어린아기

기르는 법(3)”, 6권 3호, pp.71-75. / 윤태권, “실익기사 포태

로 출산까지”, 6권 3호, pp.76-79 / 유상규, “산아제한시비 우

생학상으로 본 산아제한: 조선여성과 산아제한의 계승”, 6권

4호, pp.14-16.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3) 아동과 언어문제”,

6권 4호, pp.58-61. / 윤태권, “임부독본: 수태와 태아의 교

육”, 6권 4호, pp.69-71. / 이선근, “아동과 위생 소학교 아동

의 보건문제: 특히 부모와 보호자에게”, 6권 4호, pp.72-75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4) 아동과 언어문제”, 6권 5호,

pp.64-70. / 이선근, “요체에 조심할 어린애기 섭생법”, 6권 5

호, pp.71-73. / 윤태권, “임부독본 포태와 모체의 변화”, 6권

5호, pp.74-75.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5) 갓난애기 재우는

법”, 6권 6호, pp.64-65. / 윤태권, “임부독본 임신중의 섭생

법”, 6권 6호, pp.66-68. / 이선근, “요체 가장만혼 아동의 소

화불량증: 그 증세와 간호법”, 6권 6호, pp.70-71. / 윤태권,

“임부독본 임신시의 惡阻症과 浮症”, 6권 7호, pp.58-59. / 이

선근, “여름철에 만혼 소아의 피부증: 그의 간호예방은 어찌

케할가?”, 6권 7호, pp.60-62.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6) 아

동과 점심”, 6권 7호, pp.63-65.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7)

아동의 심리연구”, 6권 8호, pp.55-57. / 이선근, “어린아이들의

질병을 속히발견하는 법”, 6권 8호, pp.58-63. / 윤태권, “임

신독본, 임신의 이상과 섭생법”, 6권 8호, pp.64-66. / 이선

근, “誌上顧問: 소아과 진찰실”, 6권 9호, pp.52-55.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其7의 續) 아동의 심리연구”, 6권 9호, pp.60-63.

/ 윤태권, “임부독본(續) 임신의 이상과 섭생법(續)”, 6권 9호,

pp.64-65. / 이선근, “아동과 위생 아동의 기생충문제”, 6권

9호, pp.66-68. / “육아문제 아동좌담회”, 6권 10호, pp.24-33.

/ 이선근, “아동과 위생, 아기와 기생충문제”, 6권 10호,

pp.58-60.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8) 아동과 신문에 대하

야”, 6권 10호, pp.61-63. / “그리운 옛 추억, 거룩한 어머니

의 사랑”, 6권 11호, pp.37-41. / 이정호, “아동문제講話(9),

아동과 의복”, 6권 11호, pp.63-68. / 이선근, “아동과 위생,

60) 박달성, “요사이 학생기풍 남녀학생의 戀病과 文질文疾”, 『신여성』, 2권 5호(1924년 5월), pp.54-57.

61) 자운영, “梨專小夜曲”, 『신여성』 7권 12호(1933년 12월), pp.44-49.

62) 조형근(1997)은 의료체계의 규범적·제도적 기능 및 식민지시기 의료체계의 변화를 개괄하면서 어머니의 위생적 양육이 가정의 규율화를 완성하는 주된 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6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윤성(1994), 이승원(2000) 참조.

바로 과학적 모성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의 어머니 노릇은 철저하게 ‘과학’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 수유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아기의 정확한 ‘체중’에 따라, 가슴을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에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과학적 모유수유는 시계, 체중기, 봉산수(소독약), 약솜을 필요로 한다.<sup>66)</sup>

그렇다면 아내 노릇은 어떠한가? 당시 남성들은 어떤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을까? 良妻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sup>67)</sup>

요즘의 신녀자들은 열에 아홉 이상이 “신혼 후 몇 달이 못 되어” 결혼생활에서 “理想이 수포에 도라 갔더니 남편의 대우가 돌변 했느니” 하면서 불행과 불만을 부르짖고 있는 현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현재 조선의 상황이 “가정생활 하나를 法답게 못하는 인격과 능력으로 한 거름을 더 나가서 사회운동이니 무어니”하는 것은 “우리끼리 말이지 턱업은 尙早論”이다. 긴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한 가정을 건설”해 놓는 것이다. 평화로운 가정생활은 여성의 양보와 근면, 이해와 자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여성이 “이론에 몰두”하면서 가정생활의 실지와 책임의 관념이 부족하거나 “의무와 규범을 버서 난 주장을 실천”해서는 곤란한 것이며, 특하면 자유이니 평등이니 하는 것은 가정생활의 “불평, 불만, 갈등, 충돌, 희생, 멸망 등의 모든 비극을 연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단란한 가정은 여성의 “忍受의 포용성”과 “조화의 미”가 있어야

했다.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항복하면 내 손실이 무엇인가, 外評이 엇더할가”의 “利害를 타산”해 볼 때 “남편에게 주는 만족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함”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조건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저 너그럽게 너그럽게 서로 용서하며 살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sup>68)</sup>

이와 같이 현명한 아내일수록 원만한 가정을 만드는 기수가 되어야 했고, 자신과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더욱 인내해야 했다. 아내는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주체적 자각에 의해 포용성을 길러야 했다. 윤백남씨 부인 서순자씨는 자신의 집이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의 “단란한 집안”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부부의 “의사가 꼭 마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여편네 된 죄로 꼭 참고 못 드른체, 귀먹은 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참느라니 속이 무진이 상하는 때도 있지”만, 단란한 가정은 “누구든지 한 사람만 참으면 부부 싸움이 업다”는 “정의를 발견”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다.<sup>69)</sup> 아내의 인내만 있다면 부부간의 ‘갈등’은 설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총각들이 희망하는 ‘아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내란 용모가 아름다운 것 보다는 마음성이 좋은 여자, 취미가 고상한 여자,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자애가 많아 그 고결한 성정이 자연으로 언행에 나타나 얼굴까지 고결해 보이는 여자여야 했다.<sup>70)</sup> 아내가 될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륙덕미”가 아니라 “정신미”였으며, 허영에 들뜨지 않고 순결을 신앙으로 가진 처녀여야 했다.<sup>71)</sup> 아내가 남편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내 특유의 ‘여성성’을 발휘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다. “잘 복종함으로써 잘 지배하자. 이야말로 참으로 영원한 여성이요, 영원한 안해일 것이다.”<sup>72)</sup>

이처럼 당시 청년들이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은 아내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통적인 여성상, 즉 婦德이었다. 이상적인 ‘아내’는 남녀동등이니 자유연애니 하는 서구적 이론과는 거리가 먼 부덕을 갖춘 전통적 여인상과 훨씬 가까웠다. ‘어머니 노릇’이 재래의 전통적 육아법과 철저한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서구적 양육법으로 무장할 것이 요구되었다면 ‘아내 노릇’은 탈서구화된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이었다. 여운형의 부인 진상하는 “박각 양반의 명을 거실할 수업서 반 팔십이 넘은 내가 격에 맞지 않는 양머리에다 ㅅ죽구두를 신고 강동치마를 입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면서, “천상 긴치마만 입을 내 체격에 억지로 ㅅ죽구두를 신고 ㅅ 同夫人을 하고 덩기면 도모

백일해 이야기”, 6권 11호, pp.78-80.

66) 이금진, “모유와 유아”, 『신여성』 7권 6호(1933년 6월), p.86.  
 67) 『신여성』에서 당대의 이상적 아내상과 아내의 실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나혜석, “夫妻間의 문답”, 1권 2호, pp.66-74. / 송화자, “안해에게 월급을 주라 : 이만한 일과 로동을 돈으로 계산하자” 3권 1호, pp.82-85. / ○경자, “독자논단, 젊은 부부의 위험기: 사랑의 離反과 그 대책, 나의 신혼살림 경험에서”, 3권 1호, pp.86-89. / 김명호, “결혼생활 이년간-안해에게 주는 편지”, 4권 6호, pp.10-12. / “부부조화의 16개 조항”, 4권 6호, p.45. / KT생, “滑稽對話: 신혼부부의 제 삼일 남편 · 안해 · 영무새”, 4권 9호, pp.47-49. / 김기전, “안해에 대한 희망, 안해에 대한 불평: 세가지 제언”, 5권 3호, p.76. / 무명초, “부부생활 원만비결10개조”, 6권 3호, pp.68-69. / “여성과 직업: 직업가진 안해의 비애(실화 三편)”, 6권 10호, pp.34-38. / 정원섭, “신록추억”, 7권 5호, pp.13-15. / “결혼생활보고서”, 7권 5호, pp.46-49. / 황정수, “부인필독, 남편 조정학 강좌”, 7권 5호, pp.72-78. / 조재호, “안해의 道”, 7권 9호, pp.16-19. / 양윤식, “법률과 부부관계”, 7권 9호, pp.30-35. / 황인석, “부부학 전서”, 7권 9호, pp.36-41. / 사우촌, “珍奇夫婦展望車”, 7권 9호, pp.42-47. / 이만규, “결혼생활의 위기”, 7권 9호, pp.48-49. / 유소제, “안해의 메모장: 남편 조종술”, 7권 9호, pp.50-53. / 차상찬, “역대모범 부부열전”, 7권 9호, pp.50-53. / 울금향, “남편교정술”, 7권 9호, pp.58-63. / 녹안경, “그들 부부의 이혼비화”, 7권 9호, pp.64-67. / 신태옥, “안해의 재산권”, 7권 9호, pp.76-79. / 이동원, “사라리만의 년말풍경”, 7권 12호, pp.100-101.

68) ○경자, “독자논단, 젊은 부부의 위험기: 사랑의 이반(離反)과 그 대책, 나의 신혼살림 경험에서”, 『신여성』 3권 1호(1925년 1월), pp.86-89.

69) 서순자, “나의 남편 공개장: 내 팔자가 조화서?”, 『신여성』 7권 9호(1933년 9월), p.68-69.

70) 이춘강, “미혼남녀들의 바라는 남편, 바라는 안해: 나는 이런 아내를 바랍니다”, 『신여성』 2권 5호(1924년 5월), pp.60-61.

71) 한충각, “미혼남녀들의 바라는 남편, 바라는 안해: 「순결」을 신앙으로 가진 여자”, 『신여성』 2권 5호(1924년 5월), p.59.

72) 조재호, “안해의 道”, 『신여성』 7권 9호(1933년 9월), pp.16-19.

지 췌삭거리 사내 양반을 짜러갈 수 업”다고 말한다.<sup>73)</sup> 아내가 서구적 외양을 갖추는 이유도 아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남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주는 기제가 되었다.

식민지 시기 이상적 어머니 상은 과학적으로 어머니 노릇을 하는 賢母였다. 따라서 가장 비난받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무지한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무지는 자식을 죽게 만들며, 사회를 병들게 만들며, 종국에는 인류의 멸종을 가져올 만큼 엄청난 파장을 가진 죄악이었다. 무지한 어머니에 대한 비난, 무지의 결과가 낳은 사건들은 ‘신여성’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노릇에 대한 무지가 나쁜 어머니를 낳고 있었다면 나쁜 아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쁜 어머니가 과학적 양육법의 무지와 같은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탄생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때, 나쁜 아내는 전통적 ‘여성성’, 전통적 ‘여성윤리’와 같은 탈여성화된 모습 속에서 탄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여성」에서 발견되는 나쁜 어머니와 나쁜 아내의 예증사례는 뚜렷한 변별점을 보이고 있다. 그 일례로 나쁜 어머니가 아이들의 질병 속에서 예증된다면 나쁜 아내는 비아냥거리고 냉소와 섞인 ‘희화화’된 만화 속에서 보이고 있었다.<sup>74)</sup>

### 3) ‘전문가’에 의해 완성되는 賢母, ‘남편’에 의해 완성되는 良妻

주지하다시피 신여성의 어머니 노릇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완성되었다. 의사, 박사, 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제시되는 모성역할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 되었다(김혜경, 1998, 2000; 조형근 1997).<sup>75)</sup> 특히 1920-30년대는 조선 사회 곳곳에서 발화되었던 ‘개량론’에서 결코 부수적인 위치로 돌려버릴 수 없는 집단이 바로 근대 지식을 획득하고 ‘민족의 개량’이란 사명 아래 과학적 지식의 전파를 위해 노력했던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experts)’이었다. 어머니는 전문가의 지도에 의한 과학적 육아법을 따를 것이 권고되었다(김혜경, 2000:85). 잡지 「신여

성」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머니 노릇을 설명하던 대표인사인 허신, 윤태권, 이선근은 모두 의사였다. 이들은 신여성에게 서구적 과학담론을 끊임 없이 배포하면서 아동의 심리, 교육,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리자’이자 ‘교육자’인 현모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양치는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

아내는 남편에 의하여 훈육되고 있었다. 현모에게 가정은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양처에게 가정은 수양하고 교육 받는 훈육의 장이었다. 현모의 어머니 노릇에서 보여주는 전문성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 보장된다면 양처의 아내 노릇은 남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가는 양처로 만든 한 남편의 지난한 그러나 너무나 보람찬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학생이며 여학생이었던 두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만 해도 둘은 모두 “세상맛이라고는 바늘 끝만치도 맛보지” 못하고 오직 “금색의 신기루만 동경”하는 철없는 젊은이에 불과하였다. 이런 두 젊은이가 결혼을 한 후, 바깥에서 일해야 했던 남편은 “실생활을 나날이 맛”보는 것과 달리 아내는 처녀 때와 똑같이 “너무나 존귀한 행동”만을 일삼는다. 그런 아내를 감내하기 어려운 남편은 매일 “분열(이혼-인용자)”과 “결합”을 사이에 두고 갈등한다. 그러나 남편은 “새날의 참「삶」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의 학교에다 그(아내-인용자)를 입학시키고 다시 교양”시키기로 결심한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받은 아내는 “참으로 나의 안해의 길을 밝게” 되어 “이지적이고 비판적 생활”을 하게 됨은 물론이고 “R 고무공장 여공으로 취직”까지 한다. “단란한, 명쾌한, 신성한 가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sup>76)</sup>

열네시간이란 기-ㄴ 시간을 틈튼치 못한 몸을 직장에서 시달리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 「매우 고단하시지요!」 「제법 피로한걸!」 「그럼은요!」 백일마지의 어린 것을 안소 나오면서 나의 거르른 苦勞를 어루만져 주는 안해의 포근한 말소리다. 안해의 공경스러운 대접과 따뜻한 정에 나는 기-ㄴ 고역하고 돌아온 피로는 훌쩍 췌기여 버렸다. 흠애비 생활의 부자연하고 불상함을 늦겼다. 나가튼 험상스러운 일을 하는 근육노동자가 밋는 것은 췌로운 노력과 만치 못한 착전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위한 모든 조건 압해서 해매는 것이다. 즉 한낱 피로한 고역을 하고 도라와서라도 그 대가되는 위안이 업시는 못살 것이다.<sup>77)</sup>

남편의 마음의 학교는 “경기가타티 쓰라든” 안해를 한 가정의 “완전한 주부”로 “조선의 어머니”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처럼 남편은 훈육자가 되어 아내를 가르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를 만나보자. 남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으로 주

73) 진상하, “나의 남편 공개장; 가정사에 등한하신 분”, 「신여성」 7권 9호(1933년 9월), p.68-69.

74) 그 대표적인 것이 안석주의 그림이라 하겠다. 안석주 만화를 포함하여 「신여성」에 실린 부부관계를 묘사한 만화 목록은 다음과 같다. 2권 5호(1924년 5월), p.11 / 4권 10호(1926년 10월), pp.19-42 / 6권 8호(1932년 8월), p.8 / 6권 11호(1932년 11월) pp.52-55 / 7권 6호(1933년 6월), pp.52-53 / 7권 7호(1933년 7월), pp.126-127 / 7권 8호(1933년 8월), p.57.

75) 특히 김혜경(1998)은 일제하 ‘어린이기’의 탄생에 주목한 시론적 연구자로 전문화된 모성역할이 당시 모성역할의 주된 변화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만, 이것을 ‘중상류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모성역할의 전문화를 주도했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조선사회의 ‘중상류 가정’을 향해 있었다기보다는 ‘신여성’을 향하고 있었다. 신여성은 서구적 양육법을 실천하여야 했고, 이러한 실천 속에서 ‘신가정’의 모습이 완성될 수 있었다.

76) 정원섭, “신록추억”, 「신여성」 7권 5호(1933년 5월), pp.13-15.

77) 앞의 글. pp.13-14.

검이 되어야 했던 아내는 사후에서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남편의 뜨거운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잠자리에서 해 들리는 이야기나마 / 언제나 귀스덕여  
 뚫고 잘 생각하군해서 / 히미하나마 차차 세상일을 알기  
 시작하구 / 언문으로부터 튼튼이 가르킨 몸이 / 반밤에  
 두(한밤중에도-인용자) 이러나하는 가궁한 열성에 / 겨  
 우나마 『팜프벳트』 한 권까지 쓰더보게 되었섯지 //  
 실상 나는 안해만오로의 네에게 만족치 못하여 / 은근히  
 너를 동무로 / 그러타 한사람의 동무로 맨들러 했구 /  
 이후스날 너는 그러되기에 어검이 업섯다.<sup>78)</sup>

사치스럽고 무지한 아내는 남편의 가르침에 의해 교화되고 있었다. 잠자리에서까지 이어지는 남편의 가르침에 아내는 귀 기울여야 했으며, 한밤중에 일어나 남편의 가르침을 복습해야 했다. 이런 아내는 마침내 남편의 진정한 동반자인 ‘동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젊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이기 전에 애인이었고 동반자여야 했기에 남편은 아내를 “당신”이 아니라 “경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남편은 “무식한 여자들과 가티 입 담울고 중노릇은 잘해주”는 ‘안해’보다는 “남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애, “대화 상대,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정다운 친구”같은 경애를 원하고 있었다.<sup>79)</sup> 그러므로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진정한 반역자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덕목들을 전달하고 있었다. 김동인은 결혼 첫날 밤 아내 김담애에게 “문사의 안해가 되었스니 문학에 만흔 취미를 붓치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었고, 박화성은 그의 남편으로부터 “주의와 사랑에 충실”하라는 “평생 잊지 못할 팔흔(짧은-인용자)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sup>80)</sup>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남편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아내’의 도를 제시하고 있었고, 착한 아내는 남편의 훈육을 착실하게 이수해야 했다.

#### 4) ‘지식’으로서의 賢母 노릇, ‘조정술’로서의 良妻 노릇

신여성성의 모성됨을 말하는 양육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올바른 ‘어머니 노릇’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신여성성은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아동의 먹거리와 관계되어 영양학적 지식과 조리법을 알아야 했으며, 아동의 복과 관련하여 피복학적 지식이 있어야 했다. 아동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 아동교육과 관련된 교육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이희경 외, 2004). 현모노릇은 철저하게 과학적 지식을 기반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현모가 되고자 하는 신여성에게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것을 요

구하였다. 어린이를 길러야 하는 여성에게 “어머니의 무식 가티 무서운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sup>81)</sup> 이처럼 어머니 노릇을 만들고 있는 태도와 행동은 ‘지식’의 소산이었다. 그렇다면 아내가 올바른 아내 노릇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유연애의 당위성은 곧 자유이혼의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결혼은 부부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말해 사랑 없는 부부생활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3년 현재 1일 평균 10건 정도 발생하는 이혼<sup>82)</sup>은 당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이런 결혼생활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것이 바로 수용적이고 인내적인 아내상의 확립이었다.

이혼소송 조정자인 미국의 유명한 판사는 부부생활을 원만하게 만드는 비법을 소개하였는데 그것은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과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비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비법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었다. ‘미국’의 ‘판사’가 말하는 조언은 “남편이 아침에는 출근하기 싫을 만큼, 저녁에는 ‘일각이라도 일즉’ 집에 올 수 있도록 가정을 남편의 「락원」으로 만들라”, “자기만큼 남편도 아끼고 위해주라”, “남편의 취미와 기호를 자신의 취미와 기호로 만들라” 등이었다.<sup>83)</sup> 이처럼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만큼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내의 주된 책무는 남편의 취미와 기호를 따라 가정을 남편의 쉼터로 만드는 것이다. 딸을 시집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말한다. “하여튼 여자라면 남자와 한평생 가티 지낼 터”이기에 “남자의 정체를” 모르고 시집을 가는 것은 “말 못하는 외국사람”에게 시집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남자”를 학습시키기 위하여 연애를 하라고 권할 수는 없기에, 가장 좋은 대안은 “소설”을 통해 “남자의 성격”과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며, 그 밖의 방법으로 “부녀 잡지의 남자 조정술”을 참조해야 한다.<sup>84)</sup>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내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좋은 어머니란 아이를 병에 걸리지 않게 양육하고, 시간에 맞추어 젖을 먹이고, 혹 병에 걸렸다면 빨리 그 징후를 파악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녀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좋은 아내란 남편을 잘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제 남편을 아주 잘 조정하고 있는 한 아내의 “메모장”을 들춰보자.

남편 ‘조정술’에 대한 한 아내의 메모는 여러 신여성들의 본보기로 제시되었다. 남편이 술친구들 하고 밤에 나갔을 때에 아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메모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미리 한잔을 잔 후, “매무세를 고치고는 화롯불을 독가노코

78) 이찬, “안해의 죽음을 듣고”, 『신여성』 6권 11호(1932년 11월), pp.4-7.

79) 금철생, “잘못, 죄과, 희망, 충고 남녀공개장: 안해에게 주는 공개장”, 『신여성』 2권 11호(1924년 11월), pp.79-81.

80) “결혼생활보고서”, 『신여성』 7권 5호(1933년 5월), pp.46-49.

81) “학부형끼리의 여학생문제좌담회”, 『신여성』 5권 5호(1931년 6월), pp.28-35.

82) 태허, “수자로 나타난 조선의 혼인조사”, 『신여성』 7권 9호(1933년 9월), pp.54-57.

83) 무명초, “부부생활 원만비결 10개조”, 『신여성』 6권 3호(1932년 3월), pp.68-69.

84) “학부형끼리의 여학생문제좌담회”, 『신여성』 5권 5호(1931년 6월), pp.28-35.

바누질 부스럭이 가튼 것”을 만지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아주 반갑게 기다리고 잇섯든 것”처럼 문을 열어주면서 “혼자서는 암만해도 잠”이 안온다고 해야 한다. 남편이 여행이나 출장을 간다면? 남편의 수첩에 부탁할 뭔가를 적어두고, 남편의 손수건이나 셔츠에는 평소 자신이 즐기는 “향수”를 뿌려 놓고 “제 향내가 나지요”하는 “우습의 소리”를 곁들여야 한다. 또한 헤어질 때는 “어린애처럼 가벼운 응석”을 부리면서 남편을 배웅하고, 떠난 뒤에는 이불, 베개, 잠옷 등을 다시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남편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飯酒를 준비하면서 “슬은 눈물이나 한숨이나 맘의 걱정을 내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우스운 소리로 남편의 기분을 맞추어 주거나 “안내를 넷여 가지고” 놀게 해주어야 한다. “지극 원만”한 부부관계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조정”의 결실이었다.<sup>85)</sup> 이것은 ‘꿈’ 같은 아내가 아니라 ‘여우’같은 아내가 탄생하는 장면이다. 아내는 남편의 쉼터를 만드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지만 동시에 혼자 잠도 잘 못자는 연약하고 귀여운 철부지여야 했다. 아내는 거리의 ‘모던셀’처럼 향기를 머금어야 했고, 자신의 향기를 남편의 손수건에 담아주는 감각도 있어야 했다.

한편 울금향은 신여성이 “결혼”이란 직장을 가진 후 “안해 취업자”가 되었을 때의 행동강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선량한 남편이 선량하지 못한 남편으로 전향해 버리기는 하루 세 번 밥 먹기보다 더 용이한 것이기에 아내라는 지위를 갖게 된 여성은 “영구취직”이라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울금향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신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의 질병 유무를 밤낮으로 ‘감시’해야 했다면, 아내로서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가지고 남편을 순시로 잊지 안코 주시”해야 했다. 지금의 남편의 애무와 애정이 결코 “명일의 사랑”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편이라는 명사는 끝임 없이 아내가 “주시하고 다시 측량”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아내라는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직업으로 취직 되는 날부터 재빠르게 남편의 성격과 취미를 저울질해야 남편정책을 세워야 했다. 남편에 대한 냉정한 탐사와 정확한 측량이 끝났다면 아내가 할 첫 번째 실행은 “대담스럽게 마음껏 응석을 부리”는 것이다. 이때의 응석은 “삿카린 마담의 아양이 아니라, 남에게 부부애를 광고하고자하는 아양이 아니라”, 아빠한테 피우는 어리광으로, 남편 앞에서 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린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침실은 “남편에게 잇서서 최상의 것 最美 最善, 最魅力的”이어야 했다. 아내는 선량하고 정숙해야 하지만, 그 선량함과 정숙함에는 “그라라보-의 ‘이트’와 싸이카의 ‘에로’를 겸한 世界一の 환후”가 있어야 했다. 기저귀를 널어놓고 빨래를 벌려 놓고 심지어는 밥상까지 내 던져 있는 살풍경한 침실은 남편의 발길을 “수상한 곳”으로 이끌게 만든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의

취미와 성격을 측량하면서 그 행실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피로에 지쳐 들어온 남편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남편이 어느 곳에 있던지 집을 그림계 만들 ‘침실’ 가꾸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저축”을 하는 것이 안해 취업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은 한 마디로 “카메레온”이라고 할 수 있다.<sup>86)</sup>

이 세상의 안해들이여 그대는 케메레온이 되라. 그러타. 그 순간순간에 빛을 변하는 케메레온이 되라. 그대의 직업이 어렵다고 탄식하기전에 먼저 그대는 그대의 비상한 예지로써 그대의 업을 살리어가라. 그대는 우선 총명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양쟁이요 그리고 살림 잘하고 그리고 모던셀 이상의 모던셀이요 그리고 카페-의 백퍼센트 써-비스를 무색하게 할 윗트를 알고 그리고 에로를 해석할 줄 알고... 그대는 카메레온이 되라. 그대의 세계를 좁히지 말고 넓히라. 一技세계에 뛰어나기보담 百技에 能하라. 바누질 한가지 잘한다고 현처가 아니다. 밥 한가지 잘 짓는다고 자랑 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치다. 여기에 그대의 남편은 교정이 된다.<sup>87)</sup>

『신여성』이 말하는 남편 조정술에는 외도와 폭력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남편에게서 향유나 백분 냄새가 날 때, 혹은 막대한 정력을 일시에 지출해야 피로, 권태, 무기력 등의 적자 정력의 현상이 보일 때는 아내는 남편의 외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아내로서 남편의 가장 중한 죄인 “외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행을 하든, 밀정을 붙이든 남편의 뒷덜미를 잡아야 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미행하게 된다면 “절대로 한눈 파지 말고 그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쫓”아야 하는데, 누가 보던지 딴 사람으로 보이게 “변장술”이 필요하다. 아내에게 남편이란 “맹수”와 같은 존재이기에, 사주가 맹수를 ‘먹이, 철봉 챗죽’으로 길들이듯이 아내 역시 남편을 길들여야 한다. 남편이 “짜귀를 짜리거든” 결코 울어서는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때의 울음은 “조금도 쉼티멘탈하다거나 멜란코릭한 미용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애무의 정을 늦기”던 “커다란 궁둥이”가 “킵킵”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는 인두와 다다미, 홍두깨와 다듬이 방망이를 가지고, 택시의 “「해들라이트」” 같은 눈, 호두알이라도 깨뜨릴 듯한 입, 성난 고슴도치 잔등과 같은 머리털로 “적수인 남편의 기”를 죽여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내는 “오냐 해보자!”하는 자세로 “일천만 조선 녀성을 위하여 먼저 남성인 당신을 때려누이겠다” 혹은 “전세계 팔역만의 녀성을 위하여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남성과 피를 흘니고 싸우겠다”고 하면서 남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이야 댕건 안땀건 굶땀”이면 좋다. “다드미질 할 때와 꼭 가튼 방법과 용맹”으로 “당장에 얼굴이나 손등을 막 우지저 놀드시 땀”벼야 한다. 그러나 충고, 탄원, 설유로도 남편이 달라질 희망이 없을 때에는 “장시간 涕泣”을 한다든지 “양젓물”이라도

85) 유소재, “안해의 메모장: 남편 조정술”, 『신여성』 7권 9호 (1933년 9월), pp.50-53.

86) 울금향, “남편 교정술”, 『신여성』 7권 9호(1933년 9월), pp.58-63.

87) 앞의 글, p.63.

마시는 “寸劇을 연출”해야 한다. 이 밖에 “구슬픈 말”을 남기고 친정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재덕과 미모에 십분의 자신” 없이는 할 수 없는 “모험”임을 명심해야 한다.<sup>88)</sup>

이와 같이 『신여성』에 실린 아내 노릇은 어머니 노릇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요구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처세’였으며 ‘술수’였다.

#### IV. 현모양처, 신여성의 막힌 출구

“구여자에 對해서 지어진 일홈, 신여성, 선진여성, 현대여성이 지향해야 할 “新·先進·現代”의 한 지표가 바로 과학적인 “육아상식”이었으며, 피곤에 지쳐 들어오는 남편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신여성이 트레머리에 통치마, 양말에 뒤축 높은 구두, 혹은 영화 보고 재즈 듣고 아이스크림에 쏘다-水를 마시는 것으로 “新”을 드러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신여성들의 소비행위는 곧장 허영과 사치의 유행병<sup>89)</sup>으로 매도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을 의지하거나 남에게 매여서 살라는 즉 과생적 생활”<sup>90)</sup>에서 벗어나 직장생활로 신여성임을 드러내기 또한 여의치 못하였다. 제사공장, 누에공장, 고무공장에서의 강한 높은 노동량을 소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근사해 보이는 타이피스트나 간호부가 받는 월급은 심한 경우 20-30전의 박봉<sup>91)</sup>이었으며, 설사 박봉을 감내할 수 있다 할지라도 3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하는 여성의 취업<sup>92)</sup>은 바늘귀만큼이나 좁은 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신여성의 상당부분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자 된 천직의 가치를 높이고, 여자된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현모양처 노릇’을 통해<sup>93)</sup> 신여성들은 진정한 의미의 ‘신여성’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엽 김원주이다. 일엽은 “나”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모성”을 선택하고 있다. 그녀의 “모성에 대한 자각”을 살펴보자.

일엽은 “처”이기 전 사람이기에, “사람이 되겠다”는 자기성찰, 이기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개인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일엽의 주장은 남존여비적인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자 자신이 여성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엽은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갖는 본질적 “기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에 충실하는 것은 “여성적 기질”의 핵심이라 말한다.

여자는 여성적 기질을 버서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먼저 모성이라는 것을 니저서는안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여성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모성을 발휘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첫째 사람이 되고 둘째 여성이 된 것을 생각해보고 어쩌케하면 모성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휘하여 불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먼저 나는 여성의 우아하고 청징하고 겸양하는 기질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해보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의 마음은 한량업시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여성은 먼저 가사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계급을 초월한 진실한 개인주의자가 되는 동시에 충실한 모성이 되려면 우선 자기가정에 관한 생활의식의 모든 노력은 남의 힘을 빌지안코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을 가지고 하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다. ... 그리고 여자는 먼저 말한바와 가티 단연코 모성을 일치 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실상은 사회가 모성을 존중히 녀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모성을 중요시 하지 안음을 싸라 ■■■<sup>94)</sup>代式 여자가 왕왕 탈선적으로 모성을 일혀버리는데 대하여 유감인 줄 생각한다.<sup>95)</sup>

일엽의 논지는 아름답고 위대한 모성, 경건한 생활, 가사에 충실, 진실한 개인주의자, 충실한 모성, 내 힘을 가지고, 단연코 모성을 잃지 안어야, 사회가 모성을 존중히 여겨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엽은 “탈선적 모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모성적 자각과 세밀한 규율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훈육시키고 있었다. 신여성의 모성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은 여성교육의 승리였으며, 신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공간이었다.

사실 신여성의 언행은 언제나 사회의 이목을 잡기에 충분하였다. 신여성들이 갖게 된 새로운 경험들은 상당부분 “사치”, “허영”, “오만”, “경박”, “케으름”, “도덕의식의 회박”, “성욕에만 열중”, “대담한 편지질”, “뻔뻔하게 웃고 인사하는” 등의 수식어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신여성에게는 여성적 규범을 내면화 하도록 강요되었다.<sup>96)</sup> “자립”적 삶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는 당시 상황에서, 남편에게 의지하여 사는 여성은 “종녀자”, “기생충”, “흙혈귀”였으며<sup>97)</sup> 매일 한 남자에게 “생식기”를 파는 창녀였다. 그러나 그런 신여성이 현모양처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아해를 기르는

88) 황정수, “부인필독, 남편 조정학 강좌”, 『신여성』 7권 5호 (1933년 5월), pp.72-78.

89) 김명희, “時評”, 『신여성』 3권 1호(1925년 1월), pp.11-12.

90) 신식, “열녀를 논하야: 먼저 여성의 존재를 차지라”, 『신여성』 4권 7호(1926년 7월), pp.11-16.

91) 송금선, “현대여성과 직업여성”, 『신여성』 7권 4호(1933년 4월), pp.46-47.

92) 김연화, “다음은 천당입니다. 에레베타엘의 자서전”, 『신여성』 7권 12호(1933년 12월) pp.56-57.

93) 이만규, “여학생에게 보내노라”, 『신여성』 7권 7호(1933년 7월), pp.12-15.

94) 글이 없고 빈 공간만 있다. 삭제된 듯 하다.

95) 김원주, “재혼 후 일주년: 인격 창조에 - 「과거 일주년을 회상하야」”, 『신여성』 2권 6호(1924년 9월), pp.40-43.

96) “요사히 신녀성의 長處와 短處”, 『신여성』 3권 6호(1925년 7월), p.38-43.

97) 김과, “조선여성의 향할 길(10): 특히 신녀성들에게 말하야 일꾼녀자가 되기를 바란다”, 『신여성』 4권 9호(1926년 9월), p.13.

것”은 남편의 사회적 직업만큼 아니 그것 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었기 때문이다.<sup>98)</sup> 신여성에게 “현모양처”는 “新”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이었으며, 신여성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사실 식민지 시기 여성의 ‘어머니 노릇’은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참된 신여성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당시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건대 결론적으로 여성의 ‘모성화’는 ‘강요된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지 않았다. 1920년대에 왕성했던 여성해방론의 물결이 약화되는 1930년대 이후 여성은 자신의 위상을 ‘여성의 자리’에서 지키면서도, 전통적으로 어머니나 전통적 주부와는 다른 여성역할에서 지위 상승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생존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김혜경, 2000:98).

그러나 여성이 현모양처됨을 거부한다면? 『신여성』에 “재혼 후 일주년”을 기고한지 8년이 지난 1933년 일엽은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일엽은 사찰에 머물렀고,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조그만 아이는 반찬은 자신이 하고, 바느질은 샴을 주고, 장은 시어머니가 와서 담가 주고 있는데, 손수 집안 살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일엽은 “바나나”를 즐겨 먹는다고 한다. 방을 늘어놓아 남편 하운실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일엽의 모습<sup>99)</sup>에서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의 신성함을 외치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집안 살림을 혼자서 하려 했던 모습을 발견하기 힘들다. 현모양처를 떠난 일엽은 소문의 한가운데에서 『신여성』의 “색상자”를 장식하고 있었다.<sup>100)</sup>

이와 같이 “신여성은 구여성보다 배우고 안다는 점에 있어서 구여성보다 좀 다른 번민이 있을 것”인데,<sup>101)</sup> 그 번민에 현모양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의 냉혹한 질타가 뒤따르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 노릇과 아내 노릇을 비껴가고 있는 박인덕이 『신여성』에서 어떻게 논해지고 있는지를 통해 잘 드러난다. 박인덕을 통해 탈모성화의 결과를 살펴보려 한다.

아름다운 외모, 미국유학까지 갔다올 정도의 학벌, 해외 각지에서 연설이 가능한 언변을 갖춘, 이화학교 창립 이래 가장 처음 발견되는 천재 박인덕은 자녀에 대한 끝없는 모성애와 남편에 대한 한없는 순종의 소양을 갖추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신여성”이 될 수 있으리라. 이런 박인덕은 가정불화로 표면히 미국 유학을 떠났다 마침내 귀국을 한다.<sup>102)</sup>

그러나 6년 만에 귀국한 박인덕을 기다리는 건 “자기남편과 두 딸이 잇슴에도 불구하고 본집에는 가지” 않는다는 질타였다.<sup>103)</sup> 귀국 후 박인덕이 남편과 합류하지 않은 것은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sup>104)</sup> “한 남편의 부인으로 또는 두 딸의 어머니로 더욱이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예수교의 신자로서, 가장 자애롭고 신성하고 또 순결해야 할 여사로서”의 직분을 과기한 박인덕은 세상으로부터의 혹독한 질타를 견뎌야 했다.<sup>105)</sup> 그녀에게 내리쳤던 비난의 핵심은 별이를 못하는 남편을 버린 것과 함께 두 딸을 내동댕이친데 있었다. 동무라고 여겼던 “여성”은 적보다 무서운 적이 되어 “미국은 그래야만 행세하든가”하는 야유와 함께 “넘우도 자기분위”의 여자, “미국식 위선에 저저서 죄와 거짓으로 눈이 가리여”진 “주책업는” 여자, “애들을 키우고 가르키고” 하는 의무를 저버린 모성결핍 여자로 매도되었다.<sup>106)</sup> 그녀에 대한 비난은 급기야 공개적으로 그녀를 질타하는 “공개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 공개장에서 성북학인은 박인덕의 이혼은 아내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를 벗어나기에 불가하다고 말한다.<sup>107)</sup> 이런 질타 앞에서 박인덕이 귀국하면서 가졌던 “우리 일천만 녀성의 동무가 되겠다”<sup>108)</sup>는 결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박인덕 사례는 신여성일수록 더욱 현모양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규범성을 잘 보여준다. 이후 박인덕은 “노라의 행위와 가튼 가치”를 가졌다고<sup>109)</sup> “쾌활한 여성! 씩씩한 여성!”<sup>110)</sup>으로 재평가되기도 하였지만, 그녀를 풍자한 소설까지 출현할 정도로 그녀에 대한 비난은 당시 신여성에게 규범으로서의 “현모양처”를 내면화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박인덕의 재능이 그녀를 더욱 몰아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신여성일수록 탈여성화에 대한 비난은 가혹했다. 일천만 여성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모두 쏟아 내리라고 한 박인덕의 결심은 현모양처의 길에

『신여성』 4권 5호(1926년 5월), pp.18-19. / “OUR NEWS” 그 동안 궁급하든 여성계소식”, 『신여성』 5권 3호(1931년 3월), pp.80-81. / 송계월, “6개국을 만유하고 도라온 박인덕 여사 방문기”, 『신여성』, 5권 10호(1931년 11월), pp.48-51.

103) “이름난 여성의 행방 탐사록”, 『신여성』 5권 10호(1931년 11월), pp.80-81.

104) 남편과 합류하지 않은 박인덕에 대한 비난과 그의 행보에 대한 소문은 당시 『신여성』의 주된 뉴스였다. “여인사론”, 『신여성』 5권 10호(1931년 11월), p.84.

105) “박인덕씨와 사천원”, 『신여성』 5권 11호(1931년 12월), pp.48-49.

106) 김순녀, “세상비판일기”, 『신여성』 5권 11호(1931년 12월), p.28.

107) 성북학인, “박인덕 공개장: 리혼소동에 관하여 그의 태도를駁함”, 『신여성』 5권 11호(1931년 12월), p.34.

108) 송계월, “6개국을 만유하고 도라온 박인덕 여사 방문기”, 『신여성』 5권 10호(1931년 11월), pp.48-51.

109) 김기림, “직업여성의 성문제”, 『신여성』 7권 4호(1933. 4월), p.28.

110) B기자, “생활탐방기(2), 農研간부 박인덕씨편”. 『신여성』 7권 7호(1933년 7월), pp.62-65.

98) 주요섭, “결혼생활은 이러케 할 것: 혼인의식부터 자유롭게”, 『신여성』 2권 5호(1924년 5월), pp.22-29.

99) B기자, “생활탐방기(2), 여류문사 김일엽씨 편”, 『신여성』 7권 7호(1933년 7월), p.69-73.

100) “색상자”는 당시의 소문 등을 실고 있는 『신여성』의 고정란이다. “색상자”, 『신여성』 7권 8호(1933년 8월), p.84. / “색상자”, 『신여성』 7권 10호(1933년 10월), p.108. / “색상자”, 『신여성』 7권 12호(1933년 12월), p.54.

101) 허정숙, “우리 녀성의 번민을 논하야(2): 여성의 번민과 해결책”, 『신여성』 3권 11호(1925년 11월), pp.2-7.

102) 일기자, “경성여류선생의 평판기(3): 박인덕씨의 학생시대”,



서 벗어나면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신여성에게 현모양처는 여성의 공적 영역의 진입이 수월치 않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진정한 신여성으로 자신의 가치와 개성을 드높일 수 있는 장이었다.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은 종래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비하적 지위에서의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출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여성에게 특히 어머니 노릇과 아내 노릇은 유기할 수 없는 직분으로 강요되고 있었고, 과학적 육아담론이 말하는 어머니 노릇과 남편을 교정하고 조정해야 하는 아내 노릇은 실천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막힌 출구라 할 수 있다.

## V. 나오며: 현모양처와 가부장제

아리에는 그의 유명한 『아동의 세기』에서 근대화의 과정에서 “승리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선언한다.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형태라고 믿어져 왔던 가족은 역사적 근대의 고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가족의 ‘자명성’ 그 자체는 근대라는 시대의 산물이라 것은 근년의 가족사회학이 이미 해명해 온 것이다. 요컨대 근대에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확연하게 나뉘질 때, ‘가족’은 사적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성역할 분담의 고정화가 강화되었고, 이와 함께 ‘애정’이라는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면서 자녀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혈연적 유대가 규범화 되어 왔지만, 실은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관철된 근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산출된 것이다(岡野幸江, 1998:205). 그런데 가정성, 부부애, 모성애, 아동 중심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가족(morden family) 안에서 작동하는 근대적인 ‘가부장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는 다른 것이다. 철저하게 사적영역으로 분류된 근대가족은 공적영역인 가족 밖에서 일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인식처여야 했으며, 노동시장에서 남성은 ‘가족임금’을 받는 가족의 대표자가 되었고, 여성은 시장에서 제외된 채 가족 안에서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가운데 어머니로, 아내로, 주부로 살아야 했다.

우리의 경우,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근대가족이 ‘신가정’, ‘스위트홈’ 등의 이름으로 가족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가족 안에 머물러야 했던 여성은 새로운 그러나 매우 익숙한 이름 즉 ‘현모양처’의 규범을 내면화해야 했다. 당시의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현모양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양처현모주의를 간파해선 안 될 것이다. 현모양처주의를 주창하면서, 여성교육을 통해 여성을 현모양처로 거듭나게 하려했던 교육정책은 사실 일본의 양처현모주의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sup>111)</sup>

111) 이는 당시 일본과 조선의 여성교육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72년 일본의 문부성은 새 학제 시행에 있어 여성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 여자에게도 남자와 같은 교육을 받게 할 것이다. 인간

일본의 경우, 양처현모사상의 침투는 명치 20년(1887)대에서 30년대에 여자교육이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가족국가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피해졌다(岡野幸江, 1998:212). 그런데 이러한 양처현모의 교육의 필요성은 일찍이 청일전쟁 이후 고양된 국가의 식 안에서 발아하였다. 즉 청일전쟁 후 일본의 여자교육론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 안에서 부여되는 여성의 역할에 높은 도덕성과 함께 국가적 시점에서의 가치가 덧붙여지게 된다. 이것은 여성이 추상적인 인격으로서의 국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통해 국가에 공헌하는 구체적 국민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小山靜子, 1991:46).

이러한 일면은 조선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개화기, 여성이 ‘남녀동등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바탕은 ‘여성=어머니’란 등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전미경, 2002),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그리고 조선의 재건을 희망하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현모양처는 식민지 시기의 이상적인 여성상이 되어 갔다. 물론 당시에도 현모양처에 대한 비난이 있었으나 그것은 지배담론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sup>112)</sup>

어찌 보면 학교를 졸업해도 여성의 직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은 근대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이고도 가장 손쉬운 직장과 같았다(송연옥, 2003:93). 결혼을 통한 여성의 현모양처 노릇은 신여성에게 자신의 ‘신’됨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현모양처’를 구성하는 ‘현모’와 ‘양처’는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여성의 현

의 도에는 남녀의 차가 없다. 남자에게 학문이 있는데 여자에게 없는 것은 안된다. 자녀교육에 모의 힘이 크게 작용하여 자녀의 才, 不才는 母의 賢, 不賢에 달려 있다. 급일의 여자는 내일의 母이다. 여자가 배워야 할 이유는 크다. (최혜실, 2000:61)

반면, 조선 최초로 여자를 위한 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소학교령’(1895)인데, 여기에는 “여아를 위하여 계봉을 加”한다라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1911년 발표된 교육령에서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부덕을 기르고 국민다운 성격을 도야하며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2장 15조)

112) 잡지 『신여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모양처’에 대한 비난으로는 苦笑生의 “현모양처주의의 教育是非: 一書簡”이 있다(3권 3호(1925년 3월), pp.9-13.). 고소생은 현모양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현모양처주의가 이중적 성도덕을 강요하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대평론』에도 ‘현모양처주의’에 대한 비난의 글이 있다. (백파, “소위 신여성과 양처현모주의”, 1권 1호(1927년 1월), pp.161-172. 참조) 또한 『신여성』에서 찾을 수 있는 ‘탈현모양처’에 대한 논의로는 공적영역에서의 신여성의 사회적 소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희영(1998) 참조.

모양처 되기를 주창했던 지배담론은 아내보다는 여성의 '모성됨'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일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1920년대 이후 일본의 수신교과서의 "양처현모" 교육은 "嫁役割"로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母役割"이 강조됨과 함께 "모성"과 "모성애"라는 단어가 많은 여학교 수신교과서에 등장하였다(吉川豊子, 1998:257). 그러나 신여성들의 욕망은 '어머니 되기'보다는 '아내 되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신여성의 아내 되기는 전통사회에서의 아내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자유연애를 '신가정' 안에서의 아내란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여기면서 사랑받는 '아내'를 소망하고 있었다.

또한 '현모'와 '양처'의 구체적 실천이 가시화되는 과정 역시 매우 상이하였다. 지배담론은 여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모성성을 발현시켜 현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신여성의 자유연애의 욕망을 잠재우려 하였다. 어머니 노릇은 재래의 전통적 어머니 노릇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서구적 양육법을 따라야 한다고 여겨진 반면 아내 노릇에는 순종하고 인내하는 전통적 婦德이 요구되었다. 신여성은 어머니로서 '전통(전통적 양육법)'을 버려야 했지만 아내로서 '전통(전통적 婦德)'을 이어야 했다. 어머니 노릇은 당시의 명망 있는 의사·박사·교수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훈육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아내됨은 남편에 의해 완성되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의 진정한 '동무'로 만들기 위하여 아내를 훈육시키고 있었다. 어머니 노릇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전문가에 의해 제시되었던 '전문적 지식'인 반면 아내 노릇은 '조정술'이었고, '술수'였으며, 남편을 잡기 위한 '책략'이었다. 이와 같이 신여성의 현모양처를 구성하는 현모와 양처는 각각 '서구'와 '전통'이 결합된 새로운 '新新女性'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성의 '현모'와 '양처'를 내면화 하도록 강제하는 근대의 일부일처 가족제도는 여성에 대한 성지배의 제도적 기초가 된다. '연애결혼'이란 로맨틱한 사랑은 '아버지의 권력'으로부터 딸을 해방시킬지는 모르나 그 대신 여성을 '남편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있었다. '연애결혼'이란 이데올로기는 전근대적 대가족에서 근대적인 핵가족으로 이행해 가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가부장제의 근대적인 형태를 여성 스스로 가까이 선택하도록 한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작용했다(우에노 치즈코, 1994:66). 여성은 현실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연애(환상)를 택했다. 여성의 연애에 대한 관심은 해방에 대한 의사 표출입과 동시에 여성 억압적인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송연옥, 2003:93-95). 따라서 식민지 시기 신여성이 갈망했던 자유연애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였지만, 자유연애를 통해 얻게 된 '아내', 아내의 규범이었던 '양처'를 내면화한 여성에게는 국가권력 외에 직접적 구속, 억압자로서 서 있었던 남편이라는 지배 권력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치이후의 일본 근대국가가 양성한 여성상은 다름 아닌 "양처현모"였고, 이것은 근대부권제질서의 초석이 되었다. 양처현모 이데올로기(혹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인용자)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근대적 성별역할분업을 지탱하면서 근대가족의 성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長谷川 啓, 302-303).

현모양처, 양처현모를 육성하는 근대 한·일 양국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현모양처·양처현모는 여성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였다. 이것은 여성의 삶, 여성의 인식의 유일한 선택을 '현모양처·양처현모'로 제한함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현모양처 되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것이며, 그 사회적 과정이 본격화된 것은 식민지 시대이다. 신여성은 규범으로 제시된 현모양처 노릇을 통해 종래의 구가정을 탈피하여 신가정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신여성에게 결혼과 가정이외의 대안이 한정된 상황에서 현모양처는 신여성이 자신의 '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이지만 동시에 현모양처는 신여성이 반드시 깊어져야 할 짐이었다. 고학력의 엘리트 신여성일수록 현모양처는 더욱 내면화해야 하는 규범이었으며, 신여성이 현모양처에서 벗어나는 경우 사회의 혹독한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현모양처 노릇은 신여성의 도덕적 재무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신여성의 현모양처 노릇은 실패로 끝나게 되거나 혹은 끝없는 죄책감으로 환원된다. 종래의 여성의 역할이었던 어머니와 아내 노릇은 근대에 이르러 새로운 현모양처 노릇을 추가했을 뿐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관념은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단지 좀더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주되었을 뿐이다.

□ 접수일 : 2004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3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6월 08일

#### [참 고 문 헌]

- 가와모토 아야(1998). **조선과 일본에서의 현모양처 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개화기로부터 194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사.
- 권희영(1998). 1920-30년대 '신여성'과 사회주의: 신여성에서 프 로 여성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101-128.
- 김경일(1988).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가족과 여성 관념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4, 11-42.
- 김경일(2001). 식민지 여성교육과 지식의 식민지성: 식민 권력과 근대성의 각축. **사회와 역사**, 59, 83-109.
- 김수진(2000). '신여성'. 열려있는 과거. 맺어 있는 현재로서의 역사 쓰기. **여성과 사회**, 11, 6-28.
- 김미영(2003).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신여성'의 주체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운성(1994).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 ‘근대적’ 전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98). 일제하 ‘어린이’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1999). 가사노동담론과 한국근대가족: 1920. 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5(1), 153-184
- 김혜경(2000). 식민지 시기 가족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 어린이, 모성 형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8, 한국사회사학회, 71-105
- 문소정(1997). 여성운동과 모성담론. **여성학연구**, 7(1), 47-64.
- 문옥표 외(2003). **신여성**. 청년사.
- 박용옥(2001). 1920년대 신여성 연구: 「신여자」와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국학자료원.
- 박정애(2000).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1910-19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11, 46-63.
- 소현숙(1999). 일제 식민지시기 조선의 출산통제 담론의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연옥(2003). 조선 ‘신여성’의 내셔널리즘과 젠더. **신여성**. 문옥표 외. 청년사.
- 안태운(2001). 일제하 모성에 관한 연구: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에노 치즈코지음. 이승화 옮김(199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 이노우에 가즈에(2003). 조선 ‘신여성’의 연애편과 결혼관의 변혁. **신여성**. 문옥표 외. 청년사.
- 이승원(2000). 근대 계몽기 서사물에 나타난 ‘신체’인식과 그 형상화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외(2004). (가제) **굽 높은 저 여자가 누구뇨**. 한겨레출판사(근간).
- 전미경(2002). 개화기 ‘남녀동등’ 담론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계몽의 시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87-101.
- 전은정(1999).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여성주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윤택림(1995).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8, 161-207.
- 조형근(1997). 일제시대 한국에서의 의료체계의 변화와 그 사회적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필립 아리에스 지음. 문지영 옮김(2003). **아동의 탄생**. 새물결. 최혜실. (2000). 「칭탄」과 1920-30년대 한국 여성 문학론. **여성문학의 새로운 시각 2**. 김진영.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현경미(1998). 식민지 여성교육 사례연구: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양희(1997). 일제시기 조선의 ‘현모양처’ 여성관의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岡野幸江(1998). 揺らぐ家族神話. <青箱>を讀む. 日本文學協會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學藝書林.
- 吉川豊子(1998). <戀愛と結婚>(エレン・ケイ)とセクンロジー. <青箱>を讀む. 日本文學協會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學藝書林.
- 小山静子(1991).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 長谷川 啓(1998). <新しい女>の探求. <青箱>を讀む. 日本文學協會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學藝書林.